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안보 평가

2023.5.25.

박 준 용

(주사우디 대한민국 대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안보 평가

1. 서론	-----	1
2. 사우디 경제의 특징	-----	2
3.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과 사우디 경제 상황	-----	4
가. 사우디 경제와 타국 경제 간의 비동조성		
나. 최근 사우디 경제의 개선 추이		
4. 사우디 경제안보 실태의 평가	-----	8
가. 사우디 경제의 강점	-----	9
○ 저렴한 생산단가의 풍부한 오일		
○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젊은 인구		
○ 안정된 정치체제		
○ 3개 대륙연결의 위치		
나. 사우디 경제의 약점	-----	14
○ 비석유 부문의 빈약		
○ 사우디인 인력의 기율 및 숙련도 부족		
○ 정부기관 행정의 비효율성		
○ 여타 약점들		
다. 사우디 경제의 기회요소	-----	18
○ 다수의 대형 건설프로젝트 실시		
○ 바이오일 제조업 육성		
○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화		
○ 광물 자원의 본격적 개발		
○ 관광·스포츠 산업의 확대		
○ GCC의 공동시장 지향 및 FTA추진		
라. 사우디 경제의 위협요소	-----	30
○ 국가안보: 핵심 산업시설의 노출		
○ 글로벌 유가 급락 가능성		
○ 세계 식량난 가능성		
5. 사우디 경제안보와 비전 2030, 그리고 한국 경제안보	-----	38
6. 사우디 여론 주도층의 구조	-----	40
7. 결론	-----	42
8. 사우디아라비아 약황	-----	48



1. 서론

사우디 경제는 특유의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종종 사우디 경제의 약점이 강점보다 훨씬 커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대국이 되기 어렵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사우디 GDP는 \$1조, 세계 17위였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8.7%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많은 나라들이 고인플레이션률에 시달렸지만, 사우디 인플레이션률은 2.47%(aop기준 2.5%, eop기준 2%, IMF통계)에 그쳤다.

2022년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도, 사우디 경제가 양호한 실적을 보인 이유는, 사우디 경제의 약점들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들이 강점들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들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우디 경제의 강점들 중 최대 강점은 막강한 산유능력이다.므로, 글로벌 유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사우디 경제는 대부분의 위협요소들을 별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글로벌 유가의 대폭 하락은 사우디 모노-컬처럴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1973년 이래 몇 차례의 유가 급락 시기에 사우디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그 시기에 원유 소비국들은 저유가의 혜택을 누렸다. 이처럼 산유국 사우디의 이익과 석유 소비국들의 이익 간에는 상반성 또는 부조화가 비교적 선명하게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저유가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함께 2016년 11월 OPEC Plus를 결성하여 글로벌 산유량을 조절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이를 보면, 산유국들이 산유량 조절을 통해 고유가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사우디 경제가 계속 오일부문 소득에 의존하려 한다면, 결국 침몰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 경각심을 바탕으로, 2016년 4월 사우디 왕실은 야심차게 경제다양화를 추구하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글로벌 유가가 정부 재정을 뒷받침해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사우디 정부가 미래에 찾아올 유가 하락에 쫓겨 비전 2030이라는 탈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만든다. 사우디 정부가 이러한 ‘탈석유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글로벌 유가의 과도한 하락 이전에, 오일부문 소득을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사회 곳곳에 강한 보수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안보를 확보하는데 국가안보 유지는 최우선적 필요조건이다. 사우디 경제의 경우, 국가안보 위기 상승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승수효과가 다른 경제들에 비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오일의 생산, 처리, 유통 시설이나 물과 식량의 공

급망에 위협이 가해지면, 사우디 경제안보가 받는 위협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래 국가안보를 미국의 공약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 이래 미국의 대중동 안보 공약은 몇몇 이유로 지속 약화되어온 것으로 중동국가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초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사우디 정부의 대주변국 정책은 변화를 시작하여 경제안보에 긍정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사우디 경제안보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협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의외로 저항력과 회복력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우디 경제가 다른 경제들과 비교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사우디 경제에 어떻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threat)로 작용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 정부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어떻게 강점과 기회요소들을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요소들에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노력들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우디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오일 부문 비중의 과도

현재 경제 다변화를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사우디 경제는 아직 오일부문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단일상품 경제(mono-cultural economy 혹은 rentier economy)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사우디 재무부 예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오일부문 소득(oil revenue-오일 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65%를 차지했고,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오일부문이 GDP에 기여한 비중은 32.7%였다. 사우디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1년간 오일부문 소득이 약 \$3,260억(일일 \$8.93억)이었고, 2022년 오일수출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79%(2021년에는 71.9%)였다. 2022년 사우디 오일부문의 성장률은 15.4%였다(비오일 부문 성장률은 5.5%). IMF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사우디 재정 균형을 위한 유가(브렌트 기준)가 \$72.4pb였고, 실제 글로벌 유가는 연평균 \$100.94pb(2021년에는 \$70.89)였으므로 사우디 정부는 풍부한 외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농업 비중의 과소

사우디 국토는 약 215만km²로 광대하지만, 국토의 95%가 사막성 토지이고, 1.6%만이 경작 가능하다. 남서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의 연간 강우량이 100mm이하로서 노천 상태에서 농작물 재배는 어렵다. 사우디 경작 면적이 감당해낼 수 없는 많은 인구와 이들의 식성 다양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량 자급률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농사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러나 수년 후, 경작지 지반 침하 우려와 국내농업의 상대적인 고비용 구조 때문에 사우디 정부의 식량자급 대책들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World Bank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사우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고작 2.31%다. 이에 비해 세계 138개국의 2021년도 농업 평균비중은 10.3%였다. 다행히, 현재 아라비아 반도의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지만, 식량수요의 충족은 매년 사우디 정부에게 큰 과제다. 사우디 정부는 해외수입, 해외농장 경영, 국내 신영농 도입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 바이오일 제조업의 빈약

오일, 가스, 석유화학 생산을 제외하면, 2022년 사우디 제조업(non-oil manufacturing)의 GDP기여도는 겨우 8.6%에 불과했다. 시초에, 사우디 제조업의 출발은 1976년 사우디 정부가 경제 다변화를 위해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SABIC)을 설립했을 때부터였다. 당초 목표는 석유부문의 제조역량 확장이었으나, 차츰 이와 관련이 있는 압연강, 석유화학, 비료, 파이프, 동 케이블, 트럭 조립, 냉장, 플라스틱, 알루미늄제품, 금속제품, 시멘트 등의 중공업으로 확대되었다. SABIC(지분의 70%는 오일·가스 독점기업 Saudi Aramco가 보유)은 세계 최대의 종합철강회사 중 하나인 Saudi Iron and Steel Company("HADEED")를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갖고 있다. 현재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일 부분 제조업을 연평균 8.2%씩 성장시켜, 2030년 GDP의 11.6%에 달하게 한다는 육성 목표를 갖고 있다.

라. 외국인 노동력 비중의 과도

2023년 5월 31일 사우디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 거주 총인구는 3,220만명이며, 내국인이 1,880만명으로 58.4%, 외국인이 1,340만명으로 41.6%를 차지했다. 3가지 인구수를 2010년과 비교하면, 각각 34.2%, 33.8%, 34.7% 증가했다. 이전에 발표되었던 사우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사우디 내 총취업자 수는 1,459만명이며, 이중 외국인 취업자는 1,090만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사우디인(국적자)의 취업자는 369만명으로 25%를 차지했다. 취업자들은 민간부문에 63.8%(930만명), 가사부문에 24.5%(358만명), 공공부문에 11.7% 분포되어 있었고, 이중 외국인들은 민간부문에 66%, 가사부문에 33%, 공공부문에 1% 종사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사우디 사회의 개방과 경제발전,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상응하여 외국인의 사우디 입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공공부문 비중의 과도

2021년 말 기준, 사우디 GDP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은 52.5%(석유 부문 및 정부 부문의 합산)로, 타국 경제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전통적으로 사우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이유의 바탕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정인 점, 자원의 국가소유제(광물권 국가

소유)를 채택하고 있는 점, 1970년대 초이래의 ‘오일 습관’ 영향이 작용한 점 등이 있다. 사우디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과도한 비중은, 경기부진 시기에 정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평시에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우디 공공부문의 유지는 오일부문 소득에 크게 의존하므로, 글로벌 유가 하락시에는, 사우디인 실업률이 급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영화는 비전 2030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되어 있다.

바. 남녀간 노동참여율의 격차

사우디인 여성의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것도 사우디 경제의 특징 중 하나다. 2022년 Q1 남녀간 실업률은 약 4배 차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2배 차이였다. 여러 원인 중에는 사우디 사회가 보수적인 점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우디 통계상 대학 졸업자 중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다수인 점은,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사우디 경제의 생산과 소비 부문에 큰 손실이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목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포함시키고 있고,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추이는 괄목할 만하다. 2022년 인구센서스에서 총인구 3,220만명 중에서는 남성이 1,970만명(61%), 여성은 1,250만명(39%)이었다.

3.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과 사우디 경제 상황

가. 사우디 경제와 타국경제 간의 비동조성

세계 여러 지역에서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록다운이 풀리기 시작한 2021년 상반기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는 내내 불확실성과 불황 속에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소한 금년 중에는 글로벌 경제가 추가 후퇴할 것으로 보고, 일부는 금년 중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은 중장기적 추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 사우디 경제에서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2022년 여러 지표들이 매우 희망적 수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2022년, 사우디 경제지표들이 여타 경제들과는 판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까지는 글로벌 경제에의 위협요소들이 사우디 경제에 대해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현상은 1970년대 초이래 중동에서 정치적 이유로 종종 발생했던 안보위기 국면에서도 관찰되었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글로벌 유가 폭등은, 석유 소비국의 경제가 큰 위협을 당한 것과 달리 산유국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린 또하나의 사례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협요소들의 정도 여하와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는, 사우디 경제가 여타 경제들에 비해 훨씬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유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글로벌 식량난은 사우디 경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지만,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장기화 되면, 사우디 식량안보는 유가와 무관하게



타국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우디 경제안보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나. 최근 사우디 경제의 개선 추이

IMF는 매년 회원국들과 양자 토론을 가진 후 스탭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 7월 IMF가 사우디 경제에 관해 발표한 스탭 보고서(Staff Report for the 2022 Article IV Consultation)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팬데믹이 유발한 깊은 경기침체(recession) 후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유동성 및 재정적 지원, 비전 2030하의 개혁추진, 높은 유가 및 생산이 견고한 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금융부문의 회복 등으로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팬데믹 퇴조의 효과, 오일 생산/가격의 상승, 경제의 건실화로 인해 재정상황 및 대외부문이 개선되었다. 2021년 전반적 성장률은 3.2%로 견고했는데, 특히 사우디 국민의 고용 증가(특히 여성)에 힘입은 비오일 부문의 회복이 추동했다. 2022년에는 금융정책 긴축, 재정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직까지는) 제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7.6%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개혁 어젠더 및 국가투자전략(National Investment Strategy)이 Public Investment Fund(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 하에 지속 이행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스탭 보고서에 대해, 집행이사회는 동의하면서 사우디 정부의 신속한 팬데믹 대응 조치와 강력한 개혁 추동력, 높은 글로벌 유가와 사우디 증산에 힘입어 사우디 경제가 큰 폭의 성장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대외경제 지수가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 이러한 IMF의 긍정적인 종합평가를 참고하면서, 현재의 사우디 경제상황을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GDP 증가율)

2023년 3월 사우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실제 성장률은 여러 글로벌 전문기관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8.7%로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이는 글로벌 유가가 매우 높았던 2011년의 10%이후 최고치로서, 석유부문의 유례 없는 15.4% 성장과 비석유부문의 견고한 5.4%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다만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Strategic Gears의 3.1%,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은행의 2.3% 등으로, 장래 글로벌 유가하락 예측이 반영되어 2022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사우디 연도별 GDP성장률: %〉

	‘15	‘16	‘17	‘18	‘19	‘20	‘21	‘22
전체	4.7	2.4	-0.1	2.8	0.8	-4.3	3.9	8.7

석유부문	5.3	3.6	-3.1	2.3	-3.3	-6.7	0.2	15.4
비석유부문	4.9	1.9	3.0	-2.4	4.1	-3.7	7.2	5.4
정부서비스	2.3	0.2	0.3	3.9	1.7	-0.6	-0.6	2.6

※ 사우디 통계청

(재정·물가·금융·FDI)

경영 컨설팅 회사 Strategic Gears(본부: 사우디 소재)가 2023년 1월 발간한 <2023년 사우디 경제 전망 보고서>는 사우디 경제의 거시지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이 중 2022년도 지표들은, 아직 추정치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고루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재정(지출: \$3,090억)수지 흑자는 GDP의 2.6%로(실제 결과는 \$276.8억 흑자, GDP는 약\$1조),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6.0%(실제 결과는 13.8%)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재정흑자는 2014년 이래 8년 만에 다시 시현되는 것이다. 다만, IMF는 2023년도 사우디 재정균형 유지를 위한 유가를 \$80pb이상으로 보고, 실제 글로벌 유가가 \$80pb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됨에 비추어, 재정수지가 GDP의 -1.1%로서, 다시 적자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 거시경제 실적과 전망: YoY, %>

	2019	2020	2021	2022(추정)	2023(전망)
CPI인플레이션	-2.1	3.4	3.1	2.6	2.1
재정수지(of GDP)	-4.5	-11.2	-2.3	2.6	0.4
경상수지(of GDP)	4.8	-3.2	5.3	16.0	12.3
정부부채(of GDP)	22.8	32.8	34.1	24.9	24.6
외채(of GDP)	23.2	33.8	34.1	28.9	29.4
외환보유고 (수입충당개월)	32.8	25.4	22.7	25.4	26.1
환율(SAR/USD)	3.75(고정)	3.75(고정)	3.75(고정)	3.75(고정)	3.75(고정)
인구(백만명)	35.8	35.9	35.9	36.4	36.9

※ Strategic Gears 2023년 사우디경제전망보고서(2023년 1월 발간)

사우디 물가상승률은 가격 상한제 및 보조금 정책, 중앙은행(SAMA)의 '점진적' 이자율 인상에 힘입어 비교적 잘 관리되었다. 2023년에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47%였고, 2023년 물가상승률은 G20경제들 중에서 가장 낮은 2.8%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중앙은행은 이자율(repo rate)을 2022년 11월 4.5%, 12월 5%, 2023년 2월 5.25%, 3월 5.5%, 5월 5.75%로 상향 조정해오고 있다. 2022년 8월 EIU는 사우디 금리 인상이 사우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2년도 사우디 무역수지는 \$2,220.6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2,331억의 흑자기록 이후 최대치였고, 2021년의 \$1,233억 흑자에 비해 79.7% 증가한 것이었다. 다만, 2022년 연중에는 사



우디 수입총액이 점차 증가한데 비해 수출총액은 6월 이후 점차 감소하여, 월별 무역 흑자 폭이 점차 감소했고, 2023년 2월에는 무역흑자가 \$118억으로, 전년 2월 \$178억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주로 원유수출이 11.7%, 비오일 수출이 16.4% 감소한 결과였다. FDI유치는 사우디 경제 다변화에 긴요하고,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된다. 2020년 \$54억이던 사우디 FDI 유치액은 2021년 \$193억으로 큰 폭 증가했으나, 2022년 \$79억 유치에 그쳤다. 아랍국가들 간 FDI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FDI유치를 위한 펀딩 프로그램, 대형 프로젝트, 친기업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2030년 FDI유치 목표를 GDP의 5.7%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실태: 국적·남녀·부문)

사우디 경제의 개선 추이는 2022년부터 사우디 전체인구의 실업률 감소 및 사우디인(국적자)의 실업률 감소에서도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12월 실업률 4.77%는 9월의 5.77%에 비해 1% 감소한 것이었고, 2020년 6월의 사상 최고치 8.98%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우디인(국적자)의 실업률은 사우디 내 거주 외국 국적자가 포함된 인구 전체의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월 사우디 인구전체의 실업률은 4.77%였으나, 사우디인의 실업률은 8%였다.

2022년 12월의 사우디인 여성 실업률은 15.4%로서 9월 대비 5.1%, 전년 12월 대비 무려 7.1%가 감소했다. 사우디인 여성의 노동력참여비율은 36.0%, 인구대비고용비율은 30.4%였다. Q3기간 사우디인 여성의 취업 분야는 교육 26.2%, 도소매업 16.2%, 보건·사회복지 9.2% 등이었고, 61.4%의 여성이 민간부문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사우디인 남성은, 실업률이 4.2%로서 9월 대비 0.1%, 전년 12월 대비 무려 1.0%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사우디인 남성의 노동력 참여비율은 68.5%, 인구 대비 고용비율은 65.7%였다. 2023년에도 사우디 실업률은 비석유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지속 성장, 정부주도 프로젝트의 이행 가속화로 인해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문별 고용 통계를 보면, 2022년 Q2의 경우 사우디인들은 공공부문 52.5%, 민간부문 47.1%, 기타부문 0.4%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거의 전부를 사우디인(국적자)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때에는, 공공부문에 종사 중인 사우디인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사우디 정부는 구직자들을 돕는 톨로 Jaddarah, TAQAT, Saad 등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2011년 Nitaqat(아랍어로 ‘카테고리’ 또는 ‘scope’라는 뜻)이라고 불리는, 직종별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설정하고, 국내외 기업들을 사우디인 고용비율에 따라 6등급(platinum, high green, mild green, low green, yellow, red)으로 구분하여,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불허 및 기업등록 갱신 금지까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에 의

탁하여 사우디인(국적자)의 취업을 늘리고, 사우디인의 노동 숙련도를 제고하려는 사우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2018년부터 2022년에 걸쳐 보완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이행 강도가 증가했다.

(그린경제 성장)

사우디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산업 다양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노력도 적극 기울이고 있다. 2015년 최초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로부터 2021년 10월 수정 제출된 NDC는 목표 감축분을 2배 이상 늘린 278Mteq로 공약했고, 206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UAE는 2050년). 이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핵심 목표의 일부가 되었다. 이행을 위해, 사우디 정부는 수소 등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증대, 에너지 효율 증대, 청정 탄화수소기술 개발, 효율적인 수처리와 담수 생산,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2021년 10월 사우디아람코는 100%지분 소유 기업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SABIC과 ACWA Power(2004년 설립 민간기업, 담수 및 발전, PIF가 50%지분 보유)등 유수의 사우디 기업들도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다. 100%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네옴 회사는 2022년 5월 1억그루 식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21년 3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는 중동지역과 사우디 국내의 두 차원에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중동/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Middle East/Saudi Green Initiative)를 제안했다. 이를 행동에 옮기기 위해, 2021년 10월, 제1차 MGI회의를 리야드에서 2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022년 11월 샤름 알셰이크 COP27회의 계기에는 제2차 MGI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에서 2억ha의 토지 복원, 6.7억톤의 탄소배출 감축, 500억그루의 식수를 제안했으며, 리야드에 MGI사무국 설립과 MGI프로젝트 이행 기여금 10년간 25억불 공여를 약속했다. 사우디 정부는 SGI 이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100억그루 식수, 2030년까지 사우디 발전의 50%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나머지는 천연가스 사용), 청정탄화수소 기술로 1.3억톤의 탄소배출 제거, 206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등을 제시했다.

4. 사우디 경제안보 실태 평가

이 글에서 논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제의 안정적 작동이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경제안보를 보장하는 데에는 당연히 국가안보가 핵심요소로 포함되지만, 중요한 생산요소들의 결여, 중요한 산업기술의 결여, 에너지 가격의 급변, 물류의 장애 발생 또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 글의 논의 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이 글에서 경제안보란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하는데 중대한 방해받지 않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우디 정부는 자국경제가 갖고 있는 특유성으로 인해, 경제안보를 위해 타국 정부들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노력의 방향은, 타국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경제의 강점(strength)은 강화시키고, 약점(weakness)은 줄이고, 기회(opportunity)는 실현시키고, 위협(threat)은 방지함으로써, 경제안보 상태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우디 경제안보 상태를 SWOT의 4가지 각도에서 평가해볼 것이다. 이에 앞서, 사우디 경제안보에 대한 평가시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 요소를 짚어둔다. 첫째, 특정 요소가 사우디 경제안보에 기여할지, 파괴적일지 여부는, 그 요소의 작용 수위와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제 군주가 실질적 통치를 하는 왕정체제(monarch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경제가 여타 경제들에 비해서는 지도자 개인적 요소의 영향(key man risk)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1932년 사우디 3왕국의 출범 선포 이래, 사우디아라비아는 2번째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대전환은 1973년 유가급등 후 있었던 경제·사회·대외관계의 대전환이었다. 현재 진행중인 제2차 대전환의 유인은 에너지 전환, 미국의 대중동 정책 변화와 중국의 중동진출, 젊고 야심찬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등장이다.

가. 사우디 경제의 강점(strength)

(저렴한 생산단가의 풍부한 오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이고, 거의 항상 최대 원유수출국이다. 대략, 사우디 오일 생산량은 글로벌 산유량의 12%를 차지하고(OPEC Plus합의에 따라 지속 조정, 2023년 2월의 경우 1,036.1만bpd 생산), 원유 수출량은 글로벌 수출량의 17%를 차지한다. 사우디 국내의 오일 소비량은 335만bpd로 글로벌 소비량의 3%에 그치고, 생산된 원유의 대략 70%안팎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사우디 원유 생산이 사우디 경제의 확실한 강점이 되는 이유는, 산유량이 많거나 해외 수출량이 많거나, 글로벌 유가가 높거나, 생산단가가 낮아 판매이익이 커지는 4가지 요소 중 어느 한두 가지만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 이 4가지 모두를 갖춤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여타 산유국들에 대해, 그리고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발전을 지속하려면, 글로벌 유가가 사우디 재정균형 가격(fiscal breakeven price) 및 대외적 균형 가격(external breakeven price)을 상회해야 한다. 이는 왕실 유지와 국가 생존, 장기적 국가발전의 청사진인 비전 2030 이행의 필요조건인 만큼, 사우디 정부는 현재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요시 다수의 산유국들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틀로 OPEC(13개국) 및 OPEC Plus(OPEC+: 23개국)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2022년 10월 5일 유가 하락의 불안을 느낀 OPEC Plus는, 11월부터 8월 대비 200만 bpd 감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고유가가 국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되어 중간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 중이던 미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산유국들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고, 오직 자국산 원유의 증산 및 전략비축유(SPR)의 방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OPEC Plus는 2023년 4월 5일 추가로 자발적 조치의 형식을 통해 5월부터 12월까지 166만bpd를 감산기로 결정했다(러시아는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오던 50만bpd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기로 결정). 결국 OPEC Plus는 전년도 10월 및 금년 4월 2차례에 걸쳐 366만bpd의 감산을 결정한 셈이었다. 이로 인해, 유가가 4월 12일 \$87pb로 회복되었으나, 5월 3일에는 다시 \$72.8pb로 하락했고, 5월 12일 \$75pb를 기록했다. 이러한 글로벌 유가 하락과 사우디 산유량 감소의 결과는 최근 사우디 오일부문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원유 매장량은 2021년 기준으로 2,975억b(BP 세계에너지자원 통계)로서 세계 매장량의 17.2%를 차지하여, 베네수엘라의 3,038억b(17.5%)에 이어 2위다. 이러한 사우디 원유의 매장량은, 실제 산유량이 1,200만bpd라고 가정할 때, 약67년간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사우디 천연가스 매장량은 2021년 현재 6.0조m³(BP 세계에너지자원 통계)로, 세계 매장량의 3.2%이며, 8위(BP, 2021)였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의 생산량을 지속 유지한다면, 천연가스 가채연수는 약 51.2년이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 가스 생산량은 2020년 1,113억m³, 2021년 1,173억m³(전년 대비 4%증가)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생산량이 글로벌 가스 생산량 4.04조 m³의 2.9%,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수출량을 늘려 비전 2030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려 한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발전 연료에서 석유를 배제하고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에너지 싱크탱크인 EMBER에 따르면, 2021년 사우디 에너지 믹스는 석유 39%, 가스 61%이며, 신재생에너지는 거의 제로(near-zero) 상태다. 희망적 소식은, 300MW의 Sakara 태양광 발전소가 2019년 11월, 400MW의 Dumat Al Jandal 풍력 발전소가 2021년 8월 전국 전력망에 연결되었고, 앞으로 수년에 걸쳐 3GW를 생산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7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다량 보유·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유국들 중 최저가로 생산하고 있다. 이 3가지 강점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Plus를 내에서 러시아와 함께 중심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자국이익에 최적의 글로벌 유가를 유지하여, 가득되는 페트로 달러로 rentier economy의 취약점을 만회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사우디아람코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원유생산 평균비용은 배럴당 SR10.6(\$2.8)였다. 탐사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은 배럴당 SR17.1(\$4.7)로서 5대 국제



오일회사들 보다는 낮다고 했다.

2022년도 사우디 원유·석유제품 수출액은 총수출액 SR1.54조(\$4,107억)의 약 80%였다. 사우디 재정소득(SR1.26조: \$3,360억)에서 오일부문 소득(SR8,573억 또는 \$2,286억)이 차지한 비중은 68%에 달했다. 재정소득에서 비오일 부문 소득은 SR4,109억(\$1,958억)이었다. 사우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로 오일부문의 외환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 정부는 매년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줄 수 있는 글로벌 유가 수준을 상정한다(가정 유가). 사우디 정부가 이를 대외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정수지 균형 유지 가능 유가를 \$75-80pb로 보고 있다. 다만, IMF는 2023년 사우디 재정수지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평균 유가를 \$80pb로 예상하였고, 실제 글로벌 유가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젊은 인구)

외국인 임금은 사우디인에 비해 1/2 또는 1/3로 저렴하므로, 외국인 노동력이 풍부한 점은, 최소한 단·중기적으로는 사우디 경제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 전체인구 3,261.3만명 중 외국인이 1,218.5만명으로 37%를 차지했었다. 2022년 전체인구 3,220만명 중 외국인은 1,340만명으로 41.6%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2014년말 이후의 저유가에 이은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백만여명의 외국인이 출국한 것으로 평가되나, 점차 강화된 사우디 정부의 Saudization 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거주증 발급, 매년 연장, 출국시 재입국, 동반 가족의 사우디 내 체재) 상승 및 전국민의 소비에 대한 VAT의 대폭 인상 등 생활상 경제적 부담 증가도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팬데믹 완화 및 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제 프로젝트들이 다시 추진되면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사우디내 외국인은 남녀 비율이 2.17:1, 15-64세 연령층이 83%, 노동인구가 73%였다. 2018년, 사우디 내 외국인 인력이 안보분야를 제외하면, 사우디 내 총피고용자의 76%를 차지했다. 2018년초 현재 외국인은 민간부문 전체 노동력의 80%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78%가 블루 컬러였고, 직종은 건설업 44%, 무역업 25%, 제조·금융·보험·부동산·상업서비스업 9%로 분류되었다. 민간부문의 고도 숙련 노동력 중에서도 외국인은 61%를 차지했다. 외국인 여성은 96%(71만명)가 가사 노동자에 속했다.

한편, 사우디 내 외국인 중에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우디 정부와 국영기업의 정책수립과 경영에 자문을 제공해온 외국인들도 적지는 않다. 이들의 대다수는 영국, 미국 등 서방 출신으로, 사우디 정부와 경제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혹자는 한 때 이들의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큰 상황을 빗대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건설

턴트의 나라'라고 불렸다. 그러나 최근 서방 출신들도 해외유학 출신 등 사우디인 고
급인력으로 빠른 속도로 교체되고 있다(정부, 병원, 대학교수도 동일. 현재 아랍코인
력의 90%도 사우디인). 아울러 고임금 외국인 인력의 출신국도 GCC회원국 이외의
중동인과 아시아인 등 서방 이외의 지역 출신으로 다양화되고, 서방권 내에서도 미국
과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 출신으로 분산되고 있다.

저렴하고 숙련도 높은 외국인 노동력은, 사우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가져오는 양면성을 갖는다. 긍정의 측면은 저렴한 비용의 숙련 및 비
숙련 노동력 제공이고, 부정의 측면은 사우디인 취업 기회 감소와 사우디인 숙련 노
동력 양성 기회 상실을 들 수 있다. 한편, 사우디 사회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
회·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은 거의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사우디 정부가 가하는 법적 제약들은, 리야드 주재 해당국 대사관들의
현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우디 경제의 밝은 전망은 사우디 인구 구성이 젊다는 데에도 기초한다. 0-14세 그
룹이 전체인구의 32.4%를 차지하고, 15-64세 그룹은 약 64.8%를 차지한다. 65세 이
상 인구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2022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간 연령
(median age)이 29세이고, 30세 미만 인구가 63%를 차지한다. 현재 사우디 정부는
이렇게 젊은 인구구조를 '비전 2030'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발전 방향에 반영하고, 경
제발전 계획의 이행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지 기업들이 젊은 사우디 인력
의 생산성과 근로 충실도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고급 일자리의 사우디인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비해 낮다.

(안정된 정치체제)

사우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사우디 왕정 체제가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
들에 비해 높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초 중동에
불어 닥친 아랍 스프링(Arab Spring)은 사우디 왕정 체제를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
원인을 대별해보면, 사우디 왕실의 강력한 사회통제 시스템과 사우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통치의 정당성, 외부 위협세력에 대항하는 국민적 단합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의 정당성은, 사우드 왕가가 1727년 제1사우디 왕국 건립부터 현
재의 통일된 왕국 수립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역사적 정당성, 사우드 왕가가 현재의
제3 사우디 왕국에서 이룬 국내 치안유지와 경제발전의 업적, 제1사우디 왕국 건립
시부터 시작된 와하비즘(Wahhabism)과의 연대와 성지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가져오
는 종교적 정당성에 기초한다. 외부위협이란, 시기에 따라 달랐으나 2023년 3월 사우
디아라비아가 이란과 관계정상화에 합의하기 이전까지는 이란 및 이란이 지원하는 사
우디아라비아 주변의 전투 집단들, 사우디 왕정의 종식을 주장하는 극단적 이슬람 단
체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안정의 유지는 사우디 경제발전에 필수요소가 되어 왔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단·중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왕정체제 하에서도 올바른 정책 및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면, 사우디 경제와 사회는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드 왕가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 한다. 2018년 10월 주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 내에서 발생했던 자말 카쇼끄지 피살 사건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왕세자의 국내 지위 및 대외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3개 대륙 연결의 위치)

사우디 정부와 기업들이 외국 파트너에게 설명하는 자국의 좋은 비즈니스 여건 중에는 다수의 메가 프로젝트, 풍부한 유동성, 많은 인구와 젊은 연령구조, 넓은 주변국 시장, 그리고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이 포함된다. 지리적 위치에 있어, 아라비아 반도는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요충지다. 또한 주변에는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아반도(GCC: 6개국), 아랍민족(Arab League: 22개국), 이슬람(OIC: 57개국)을 매개로 다수의 국가들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국가들과 관계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랍연맹의 인구는 약 3.5억명, GCC인구는 약 6,60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구매력이 약한 국가들이 있지만, 앞으로 신흥경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들이 다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항공, 해로(걸프, 홍해), 육로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인접국들과 지중해 및 유럽국가,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 6월 국가교통 및 물류전략(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교통물류부와 항만청, 민간항공청(GACA), 철도청(SAR)의 주관 하에 국가산업개발·물류프로그램(NIDLP)을 이행 중이다. 이 전략에 따라 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에 기존의 킹 칼리드 공항을 확장하여, 6개의 활주로를 갖고 연간 1.2억명이 이용하는 신 국제공항(King Salman International Airport)으로 건설하고, 리야드를 글로벌 항공 허브이자 인구 1,500만의 국제 대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우디 정부는 젯다에 본사를 둔 기존의 사우디아(Saudi Arabian Airlines) 외에, PIF출연으로 리야드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영 항공사(Riyadh Air)를 2023년 3월 설립했으며, 앞으로 운영할 보잉 787-9드림라이너를 최대 72대(\$370억 규모)까지 주문키로 했다. 또한, 2023년 3월 사우디 정부는 특별행정구역의 미래 신도시로 건설 중인 네옴(Neom)에 거점을 두는 네옴 항공사(Neom Airlines)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총 250개 국제노선을 운영하여(현재 에미리트 항공은

85개국 158개 노선) 매년 3.3억명의 승객을 운송하고, 외국인 승객 1억명을 운송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5개 공항의 소유권을 지주회사(Matarat Holding)로 변경하여 민영화 해나갈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로 Land Bridge 프로젝트로 동서를 연결하고, 남북으로는 North-South Line으로 리야드에서 요르단 국경까지, GCC Railway로는 쿠웨이트-사우디 동부주-UAE간을 연결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3년 2월 사우디 항만청은 젯다를 중동의 최대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3.46억을 투입하는 젯다항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젯다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위한 \$5억짜리 공사는 이미 2019년 9월 두바이 항만공사가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젯다항은 사우디 항만청이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3개 대륙을 잇는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해, 전국에 설립하려는 30개의 물류 중심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 지리적 위치가 사우디 경제의 강점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년간 혼란스런 중동의 정치적·종교적 상황 속에 놓여온 것은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온 사우디 경제의 약점이었다. 특히 2015년 이래 예멘 내전사태 및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예산투입 및 기회비용 등으로 사우디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가까운 주변에 규모가 큰 시장이 적은 점도 사우디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다행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수의 정치적·경제적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가 유입될 소지가 매우 컸으나, 여러 주변국들과 달리 이를 피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지리적 위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해나가면서, 유리한 조건들의 활용을 더욱 더 확대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 사우디 경제의 약점

(비오일 부문의 빈약)

비오일 부문의 빈약은 사우디 경제가 오일부문의 소득에 좌우되게 하고, 일자리 부족, 양질의 노동력 배양 불가, 수입에의 과도한 의존, 과학기술 및 국방기술의 발달 부진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종의 원인에 의한 유가 하락, 원유생산 차질, 원유 물류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비오일 부문이 빈약한 사우디 경제로서는 즉각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2014년 말 유가급락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갑작스런 현실로 다가왔었다. 2010년대 초부터 미국 셰일 오일의 신속한 증가로 초래된 국제시장에의 원유 공급과잉이 2014년 중반부터 유가하락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연말에 가격 폭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급속 악화되었고, 기존의 국민복지 수준과 왕가의 재정적 혜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으며,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외국 건설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야 했다.

〈사우디 실질 GDP구성: %〉

구분	GDP 비중		연도별 성장률				
	2020	2022	'19	'20	'21	'22E	'23F
A. 총GDP	100(기준)		0.8	-4.3	3.9	8.7	2.8
석유 부문 (Oil Activities)	38.9	40	-3.3	-6.7	0.2	15.4	-0.2
비석유 부문 (Non-oil Activities)	45.5	44	4.1	-3.7	7.2	5.4	5.5
정부 부문 (Gvt activities)	14.7	13	1.7	-0.6	1.1	2.2	2.2
B. 비석유 부문 GDP	(100)						
농업	4.2	6.1	1.2	-1.7	2.6	3.2	3.1
비석유 광업	0.8	1.0	4.8	0.4	6.2	6.3	6.8
비석유 제조업	13.6	19.8	1.0	-6.6	9.5	9.1	8.5
전기.가스.수도업	2.0	2.7	-1.4	-2.9	2.3	2.1	2.1
건설업	7.9	9.1	2.7	1.9	1.3	4.6	4.7
도소매 무역	15.4	21.0	6.1	-8.8	13.7	5.1	7.8
교통.물류.통신	10.3	12.3	5.1	-6.4	3.8	7.6	7.5
부동산	9.9	11.6	3.1	0.9	5.6	1.4	0.5
금융.보험.비즈니스	6.9	10.1	4.1	5.9	6.0	4.0	2.5
지역.사회서비스	3.1	6.3	-2.1	-7.0	7.7	3.3	2.4

※ Jadwa Investment 2023사우디경제전망 보고서(2023년 2월 27일 발간)/E: Estimate, F: Forecast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2015년 1월 사우디 제7대 국왕(Salman bin Abdulaziz Al Saud)이 즉위했다. 사우디 왕실에게 오일부문 소득의 급감은, 당장 재정지출의 대폭 축소를 포함하여 사우디 사회 모든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더구나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어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 예고되었다. 이렇듯, 당시 유가급락은 일시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살만 국왕(당시 총리 겸임)과 2015년 5월 제2 왕세자겸 제2부총리에 취임한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MBS)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우디 경제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 플랜을 준비해야 했다.

먼저 살만 국왕은 즉위 후 불과 몇일 만인 2015년 1월 29일, 왕령으로 내각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구조 개혁을 지시했다. 2016년 4월 25일 MBS(제2왕세자 겸 제2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발표했는데, 주된 목표는 국가 경제의 오일에 대한 의존도 축소, 경제 다양화, 공공부문(교육, 보건,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 발전,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장기적인 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새 국왕과 31세의 젊은 아들이 집권 초기에, 모험적이었지만 불가피하고, 야심찬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은 오일부문 소득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비오일 세수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부가가치세 5%를 도입한 후 COVID-19팬데믹에 의한 오일 소득감소를 보

전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15%로 인상했다(UAE는 현재 5%). 사우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2022년 고유가로 인해 재정흑자를 누렸지만, VAT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 또한 GCC차원에서 수개국과 FTA체결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사우디 정부는 2020년 6월 575개 수입 품목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0-25% 인상했다.

(사우디인 인력의 숙련도 부족)

고용실태의 측면에서, 사우디인은 사우디내 외국인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실업률이 훨씬 높다. 남성에 비해 여성 실업률이 훨씬 더 높다; 공공부문에서의 근무를 선호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력 참여비율 및 인구대비 고용비율이 각각 더 낮다. 나아가, 사우디인과 외국인을 함께 고용 중인 기업들은 특히 중년 이상의 사우디인 근로자에 대해 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비교하여 대체로 이러한 평가를 보인다: 중간·고위의 관리직을 선호하고, 하급의 관리직 및 기능직을 기피한다; 평균적으로 보수 요구액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직장 근무자로서의 기율과 숙련도가 낮다; 이직을 더 자주 한다; 해외유학을 다녀왔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다.

사우디인의 높은 실업률은 총생산 감소, 소비지출 감소, 정부의 복지재원 지출 부담 증가, 사회적 불안 요인 증가를 가져온다. 사우디 여성의 실업률이 높고, 노동력 참여비율 및 인구대비 고용비율이 낮았던 것도 사우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그만큼 감소시켜왔다. 따라서 사우디 비전 2030은 이러한 지표들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다. 그 정책을 사우다이제이션(Saudization), 프로그램을 니타카트(Nitaqat-범주, 범위의 뜻)이라고 한다. 사우디 정부가 Nitaqat을 도입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고용주들이 Nitaqat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그들의 불만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노동의 질이 낮은 사우디인 노동자들을, 외국인보다 더 높은 임금에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에 제시된 목표치(에 도달하기 이전 이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앞으로도 사우디 정부의 재정지출은 분배 중심적 구조에서 생산 중심적 구조로 계속 진전될 예정이므로, 사우디 근로자들은 스스로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안과 사회의 개방적 분위기 확산에 힘입어, 사우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사우디인의 취업은 지속 증가 중인 바이오일 부문, 특히 Saudization의 타겟 부문과 관광·레저 부문, 소매업 부문에서 앞으로도 증가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러한 변화는 고용시장에서 사우디인과 외국인 간, 남성과 여성 간 구직 경쟁을 유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와 노동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노동자 송출국의 대사관들도 저임금 일반 노동자보다 고임금 고급 노동자를 사우디아라비아



에 송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41.6%를 차지하는 다수인만큼, 이들의 사우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평가는, 저렴한 노동력 제공에 의한 긍정 측면 뿐아니라 해외송금에 의한 손실 측면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외송금 통계(사우디중앙은행: SAMA)를 보면, 대체로 글로벌 유가가 높았던 시기에는 송금액이 증가했고, 유가가 낮았던 시기에는 송금액이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의 경우, 글로벌 유가가 전례 없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액이 거의 매월 전년 대비 감소했고, 연간 총 SR1,432억(\$382억)로서, 전년대비 7%가 감소했으며, 2023년 1월 및 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와 13%가 감소한 것은 특이했다. 이는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다수의 외국인 출국 및 사우디 내 외국인의 납세 및 생계비 부담 증가로 인한 송금 여력의 감소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의 해외 송금의 사우디 경제에 대한 영향 관련,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2022년 9월 Imadeddin Ahmed Almosabbah, Arab East Colleges, KSA, 경제학교수), 1970-2016간 해외 송금과 사우디 경제성장간 관계가 비대칭적(asymmetrical)인 것으로서, 1%의 송금액 감소가 0.837%의 GDP증가를 가져왔는가 하면, 1%의 송금액 증가는 0.291%의 GDP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행정의 비효율성)

효율성이란 같은 단위의 요소 투입으로 어느 정도의 산출을 얻느냐로 측정한다. 사우디 경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유가급락으로 인한 오일부문 소득의 급감이고, 사우디 경제의 최대 약점은 오일부문 소득에의 과도한 의존과 비오일 부문의 과소한 비중이다. 따라서 사우디 경제의 최대 과제는 비오일 부문을 최단시간 내에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오일부문 소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적합한 정책, 합목적적 자원 배분, 효율적 이행의 과제가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결정 메카니즘, 정책이행 조직들간 협업, 이행자들의 태도, 기술적 요소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의 주요 직위에 있던 다수의 왕가 구성원과 그 주변 인사들이 부패 사유로 퇴진하고, 대부분 테크노크라트로 교체되었다(2017년 11월의 소위 리츠칼튼 호텔 사건). 특히 사회 전반의 부패사슬은 사우디 발전의 주요 장애요소로 작용했었다. 현재 왕가 인사들이 직접 맡고 있는 직위는 크게 축소되었는데, 예를 들어 국방장관, 국가방위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주지사 등 핵심 직위다. 현재 고위직 테크노크라트들은 유능하고, 개방적이고, 열성적이고, 부패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우디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업무목표 달성 지표(KPI)를 제시하고, 그 성취도를 대외 발표하는 데에도 열성적이다. 나아가 이들은 비전 2030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자체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컨설턴트 또는 외국인 고

문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실시해오던 사우디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2005년부터 대폭 늘렸고, 미국으로의 파견 학생 수도 크게 확대(킹 압둘라 국왕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합의) 했다. 2019년 현재 약 7만 명의 사우디인이 해외 유학 중이었다(2019년까지 총 유학경험자는 약20만명). 아울러, 최근 사우디 정부의 업무처리가 신속 간편해졌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디지털 행정의 괄목할 만한 진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자들이 사우디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조직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자체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9월 왕실은 모든 정부기관들의 외국인 컨설팅 회사 사용을 금지하는 왕령을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공공부문에 전시성 행정행위가 많고, 홍보에 과도한 시간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셋째, 정부 조직의 구성원이 상하간 팀워크를 갖지 못하고, 부서들은 횡적 협업을 긴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업무처리의 시간 지연 원인도 되고 있다. 넷째, 현 국왕의 즉위 이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위원회 제도 도입 등 많은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

(여타 약점들)

사우디 경제의 약점으로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제기된다. 또, 부동산 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의 민감성 부족도 지적된다. 특히 젊은층 인구의 증가와 이사 빈도가 높은 이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의 소형 주거 수요에 부응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주택부는 자가 주택 보유율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최근 도시 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라 도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미 대도시에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담수 및 송수 시설도 꾸준히 증가되어야 한다.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산업화 개시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발전소와 송배전 인프라 구축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 사우디 경제의 기회요소

사우디 경제에 있어, 기회요소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고, 위기요소는 성장의 동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기존의 사우디 산업구조가 오일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전 2030의 핵심 목표인 사우디 경제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오히려 타국 경제들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하다. 2021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 GDP를 세계 15위로 성장시키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SR27조의 재정지출 및 투자를 투입(투자 SR12조 이상, 재정지출 SR10조, 민간소비지출 SR5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투자 SR12



조는 Shareek프로그램(아랍어로 ‘파트너’를 의미)에 투입될 SR5조, PIF가 출연할 SR3조, 국가투자전략(National Investment Strategy: NIS)에 호응하여 유도될 투자 SR4조다. 사우디 정부는 이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30년까지 매년 SR3,880억(\$1,035억)이 유입되고(2030년 외국인 FDI가 GDP의 5.7% 차지), 국내 투자는 매년 SR1.7조(\$4,530억)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투자전략(NIS)의 핵심 대상은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교통·물류, 관광, 디지털 인프라, 보건 등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은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세계 10위 내 진입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사우디 민간부문이 GDP의 65%가 되게 하고, 비오일 수출이 2020년 GDP의 16%에서 2030년 50%로 증가하게 하고, 실업률은 7%로까지 감소하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기회요소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사우디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취약점 및 위기요소)을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우디 경제의 기회요소로서 다수의 대형건설 프로젝트 실시, 제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지화, 광물자원의 본격 개발, GCC와의 FTA추진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다수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실시)

1970년대 초이래 사우디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동력 중 하나는 건설 수요였다. 사우디 건설 붐은 글로벌 유가의 등락과 운명을 같이 해왔는데, 1973-1985년간의 제1차, 2004-2014년간의 제2차, 2021-현재까지의 제3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제3차 건설 붐 기간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살만 국왕의 즉위 이후 수립되어 왔지만, 그동안 글로벌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 부족,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의 불리한 여건, 계획의 정밀한 구체화 시간 필요, COVID-19팬데믹 등으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이러한 방해요소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완화 또는 제거되기 시작하여, 현재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건설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은 과거 1,2차 건설 붐 때의 프로젝트들과 비교되는 특징이 있다: 투입되는 액수와 공사의 범위가 크다; 기초 인프라와 건물 및 플랜트 건설 보다는 복합적인 지역 및 도시개발이 중심이다; 중점이 산업발전 촉진 보다는 문화·관광·복지·미래에 있다; 그렇지만 건설 프로젝트 계약자 선정 심사에서 local contents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건설프로젝트 이행이 국내산업 발전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규모가 대형이고 요구되는 기술이 고난도로서 프로젝트 기본구상과 설계 및 시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 기업이 다수다. 사우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들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 주요 대형 건설프로젝트 개요: \$억〉

프로젝트	주체	목표	재원
Al Ula	Al Ula왕립위원회, Al Ula	20만년 이상 역사유적 문화유산	RCU

	Development Co.	지역-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	(150)
Amaala	Red Sea Global	홍해변-초호화 리조트로 개발	PIF(14)
Red Sea	Red Sea Global	홍해 군도-중동 최초 통합된 다용도 호화리조트로 개발	PIF (160)
Diriyah Gate	Diriyah Gate Development Authority	사우디 1왕국 수도·UNESCO문화유산-역사문 화 관광단지로 개발	PIF (200)
King Salman Int'l Park	Royal Commission for Riyadh City	수도 리야드-시민의 다목적 문화휴식거주 공간으로 개발	RCRC (170)
The Sports Boulevard	RCRC	수도 리야드-시민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개발	RCRC (230)
Qiddiya	Qiddiya Investment Company	리야드 외곽-가족친화형 놀이공원·스포츠·문화 타운 건설	PIF (65)
Riyadh Metro	RCRC	리야드-세계 최대 단일대중교통 네트워크로 개발	RCRC (225)
King Salman Int'l Airport	-	리야드-승객 1.2억명이 이용하는 대형공항 건설	PIF (-)
Green Riyadh	RCRC	리야드의 녹색화	RCRC(220)
Jeddah Tower	Jeddah Economy Company	젯다-높이 1km의 세계 최고층 타워 건설	Kingdom Holdings JV(12.3)
SPARK	SPARK	동부주-에너지 부문의 21세기 허브로 건설	Aramco (1단계: 16)
Neom	The Neom Company	특별행정구역 네옴-The Line, Trojena, Oxagon, Sindalah의 미래형 도시 건설	PIF (5,000)
Jeddah Centre	Jeddah Central Development Company	젯다 중심부를 주거·호텔· 마리나·문화지구로 개발	PIF (200)
Rua Al Madinah	Rua Al Madinah Holding Company	매디나 재개발	PIF (100)
Arabian Highland, Asir	Asir Development Authority	Asir지역의 산악관광개발	PIF (130)
Boutique Group	Boutique Group	사우디의 역사적 왕궁을 럭셔리 부티크 호텔로 개발	PIF (15)
ROSHN	Roshn company (국영부동산개발기업)	자기주택보유율 70%달성위해 리야드, 젯다에 주택개발	(900)
Seven	Seven(엔터테인먼트 벤처, PIF소유)	사우디 엔터테인먼트·관광산업 개발	PIF (50)

※ 주사우디 한국대사관 작성. 밑줄 프로젝트는 PIF의 5대 기가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 대부분의 목표 종료시점인 2030년에는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세련된 도시들이 여러 개 등장하여 국가 전체의 면모가 달라지고, 명실상부한 중동의 대국이 될 것이다; 경제 중심이 담만-리야드-젯다라는 단선 축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에 비해 지역 거점들의 증가로, 사우디 경제안보 상태가 크게 보완될 것이다; 사우디 경제에서 관광 비중이 크게 증가되고, 사회의 대외



개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사우디 국민들의 자부심과 거주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다. 다만, 일부 서방 경제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사우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사우디 경제여건에 비해 너무 야심차다; 글로벌 유가 하락이 나타나면 모든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것이다; 탈석유 경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투입이 외형을 과시하는 곳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다양한 관광 시설의 수익성을 보장해줄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거대 프로젝트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기되는 논란은, 완공시까지 지급할 만큼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구상을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완공 후 흑자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숫자의 입주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네옴 시티 프로젝트의 사우디 경제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는지로 집약되고 있다.

(비오일 제조업 육성)

201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가가 크게 하락하자, 사우디 경제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경제에서 비오일·가스 분야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여, 2016년 발표된 ‘사우디 비전 2030’에서 경제 다양화의 핵심부문에 제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사우디 제조업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2021년에도 GDP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도는 13.06%에 불과했고, 2014-2021년간 연평균 기여도는 8.7%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국가가 제조분야 대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대체로 소규모이며 수입 대체형 경공업만을 맡고 있다. 대기업들이 맡고 있는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비료 등 기간산업은, 사우디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인 SABIC(아람코가 지분의 70%소유)의 제품 및 이와 관련된 품목들이다; 자본·에너지 집약적이고, 탄화수소 기반의 분야가 중심을 차지한다;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여 가동되고 있다. 사우디 국적자들은 1970년대 초부터 형성된 ‘오일 습관’으로 인해 제조업에의 취직을 기피하는 습성을 갖게 되었다; 매우 도시 지향적이고 인구분포에 상응하는 지역적 분포도를 보인다. 사우디 공업 지역은 탄화수소 자원에 의존하는 특성 때문에 담맘 지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National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Program(NICDP)에 따라 산업 클러스터(광물·철처리, 자동차, 플라스틱·패키징, 의약·바이오텍 분야)가 조성되어 왔다.

사우디 정부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련의 산업발전 프로그램들을 출범시켜왔다. 2019년 1월 출범한 국가산업발전물류프로그램(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NIDLP)은 에너지, 광업, 공업, 물류에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2025년까지 특별경제구역(SEZ)을 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발표된 Made in Saudi 프로그램은 Saudi Export Development Authority가 주도하며, NIDLP의 일환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국산품 구입을 장려하고, 국내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0월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가투자전략(National Investment Strategy: NIS)을 발표시 제조업의 육성에 필요한 FDI 유치도 염두에 두었다. FDI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로 규제 개혁, 인센티브 제공, 특별경제구역(SEZ) 신설 추진, SME·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 실현 등이 채택되었다. 사우디중앙은행에 따르면, FDI 유입은 2020년의 \$53.9억, 2021년 \$192.8억을 기록했다(2021년 세계 20위, 한국은 21위). \$192.8억 중 \$124억이 Q2에 체결된 아람코-EIG Global Energy Partners LLC.간의 Aramco Oil Pipeline Co. 지분 매각 및 리스 계약이었지만, 이를 제외한 금액도 2016년 이후 최고치였다. 그러나 2022년 실적이 다시 79억불에 그친 것에서 보듯이, 대체로 FDI는 유치 실적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과 반대로, 2021년 1월 사우디 정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중동지역본부(RHQ)를 자국 내에 설립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2024년부터 사우디 공공부문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별적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사우디 정부는, 외자기업들이 RHQ를 두바이 등 제3국에 설치할 때의 이점을, RHQ를 사우디 내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사우디 SEZ 내에 설립했을 때 얻게 될 혜택의 합으로 최대한 상쇄시켜, 그들이 사우디 내에 법인을 두도록 최대한 압박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우디 내에서 RHQ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은 사우디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게 불이익 조치로 선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중동의 다른 국가보다 더 기업친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우디 내 법인 설치시의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RHQ를 유인해줄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모하메드 왕세자는 2035년까지의 산업발전 목표를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산업전략(National Industrial Strategy: NIS)을 발표했다. NIS의 중점부문은 기계·기기, 자동차, 항공, 군수, 재생에너지, 식품공업, 석유화학, 해양산업, 의약·바이오테크, 건설자재, 의료기기, 광업이다. 이에 따르면, 2035년까지 사우디 내에 공장 수가 3.6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산업경쟁력실적지표(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I)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NIS와 NIDLP의 이행의 차원에서, 2023년 4월 리야드, 지잔(Jizan), 라스 알 카이르(Ras Al Khair), 킹압둘라경제도시(KAEC) 등 4개의 특별경제구역(SEZ)이 지정되었다. 이들 SEZ가 목표로 하는 산업부문은 경공업(바이오의약품, 의료기구, 자동차조립, 소비재), 물류, 조선·해양산업, 해상 서비스, 시추시설, 메탈 전환, 식품, 클라우드 컴



퓨팅 등이다.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율, 수입 관세, 외국인 완전 소유권,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 Saudization의무 등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조업 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우디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생산이 현재 GDP의 20%에서 2030년 35%를 점하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에의 금융지원을 위해, 2021년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설립 설계과정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은행이 협조했다)이 설립되었고, 2022년 12월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하여 6개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사우디 중소기업청의 2022년 8월 발표에 따르면, Q2 현재 중소기업 수가 892,000개로서 2021년도 Q4 대비 25.6%가 증가했다. 다만, 이들 중 81%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고, 40%는 여성이 운영하는 소매업이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투자금 중에서 커피 등 식품·음료 부문이 SR7억으로, 가장 큰 수혜 부문이었던 점은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우디 스타트업은 2022년 Q2에 MENA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앞으로 사우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제조업의 발전에 보다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일찍이 1974년 설치한 펀드로는 사우디산업개발 펀드(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SIDF)가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공업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SIDF는 2006년 은행들과 협력하여 특별히 중소기업(SMEs) 및 여성들의 사업을 금융 지원하는 카팔라(Kafalah: 본뜻은 ‘guarantee’)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2017년에는 SIDF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업, 광업, 에너지, 물류 분야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NIDLP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SIDF가 지원한 실적은, 사업 건수 4,904건, 지원 금액 SR1,419억(\$378.4억)이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이 80% 포함되고, 유망 도시지역(사우디의 소도시 및 변방도시들을 지칭)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23% 포함되어 있어, SIDF가 이들에 대해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우디 정부 설치 펀드 개요: \$억〉

종류	설립 연도	금액	운용	목적	비고
PIF	1971	5,280 수시 변동	독립 운용, CEDA에 보고	국내경제발전지원, 해외투자	이사회 의장-왕세자
NDF	2017	-	모든 발전기금 관리	발전기금과 금융지원 방향설정	의장-왕세자
SIDF	1974	280(2020)	NDF에 보고	광업,에너지,제조업,물류 각종산업발전	이사회회장-산업광 물자원부 장관
REDF	1974	490(2012)	NDF에 보고	부동산 개발 지원	이사장-왕세자
SFD	1974	67.5	NDF에 보고	아시아278건, 아프리카 429건	이사회회장-관광부 장관

ADF	1963	54	NDF에 보고	농업발전 지원	이사회회장-환경물 농업부장관
HRDF	2000	16.2	NDF에 보고	인적자원 배양	이사회회장-인적자 원사회개발부장관
TDF	2020	40	NDF에 보고	관광산업 육성	이사회회장-관광부 장관
CDF	2021	490	NDF에 보고	문화관광발전 지원	이사회회장-문화부 장관
EIF	2019	74.5	NDF외	이벤트 산업육성	이사회회장-왕세자
KSrelief	2015	10	91국, 2,374프로젝트, 62억불 지출	인도주의적 지원	창립-살만국왕 총감-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 주사우디 한국대사관 작성 공개 자료

※ Public Investment Fund, National Development Fund,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Real East Development Fund, Saudi Fund for Development, Agricultural Development Fund, Saudi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Tourism Development Fund, Cultural Development Fund, Events Investment Fund, King Salman Humanitarian Aid & Relief Center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목표에 민영화(privatization)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경쟁력 제고 및 FDI유치 증대를 위한 것으로, 2030년 GDP에의 민간부문 기여율 65% 도달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National Center of Privatization을 설립했고, 2021년 3월 Privatization Law를 제정했으며, 17개 부문에서 2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사우디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ripple effect)가 큰 대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Shareek (아랍어로 ‘파트너’를 의미)”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2023년 3월까지 28개 기업이 등록), 이로부터 민간부문에 2030년 말까지 SR5조(\$1.33조)이 투입될 예정이고, 사우디 경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총 SR12조(\$3.2조)의 투입이 있을 예정이다. 2023년 3월 Shareek 프로그램은 첫 지원으로서 아람코, ACWA Power, Ma’aden, SABIC 등 8개 기업에 의한 2030년까지 SR1,920억(\$512억)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2040년까지 \$1,244.88억 GDP 창출 기대).

사우디 제조업의 발전 전망은 대체로 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이 적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우디 내의 규제들이 두바이에 비해 많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기적으로 제조업에 필요한 양질의 자국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자동화, 디지털화를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한다; 제조업 발전을 시동할 생태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외자기업들의 사우디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우디 정부가 과도한 Saudization과 localiz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오히려 진입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SEZ설치로 일부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made in Saudi 상품의 해외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GCC가 주요 교역대상



국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반면, 그들의 제품이 사우디 국내시장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관세로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지화)

화석연료를 국부의 최대 원천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기후변화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특히 사우디의 광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우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경제성장의 새 동력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예의 대응에도 활용하려 한다. 유희 상태에 있는 광활한 국토와 안정되고 충분한 일조량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홍해안은 육지와 해양 간의 온도차를 이용한 풍력 발전을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수전해(electrolysis)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 2021년 10월 청년녹색 정상회의에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밝힌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는 수소 400만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도 자사가 생산하는 천연가스로부터 소위 블루수소를 추출해내는 데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GCC회원국들은 이미 연결된 전력망(1986년 구상, 2001년 로드맵 수립, 2012년 연결 완료, 주관기관-GCCIA)과 여타 중동국가로의 전력망 확장(2018년 구상, 2022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의 젯다 방문시 GCC-이라크 간 연결키로 합의)을 통해 전력을 공유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 불안정성을 상호 보완 가능하게 된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전력수요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나머지는 천연가스 사용, 절약되는 석유는 해외수출), 관련 프로젝트에 \$1,010억을 투입하며, 송배전 사업에도 \$379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전 2030’(2016) 및 ‘King Salman Renewable Energy Initiative’(2017)의 일환으로,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2017)과 이행기관인 RE Project Development Office(2017)가 출범했다. NREP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 40GW, 풍력 16GW, 태양열 2.7GW 등 총 58.7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 33개, 풍력 11개, 태양열 4개의 에너지 단지 등 총 48개의 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미 3차례(2017, 2019, 2020)에 걸쳐 태양광 PV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성과를 거뒀다.

사우디 정부는 글로벌 수소 생산대국이자 수출대국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0억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공장인 NEOM Helios(그린수소 일일 650톤, 연간 20만톤, 그린 암모니아 연간 120만톤 생산. 사우디 ACWA Power와 미국 Air Products가 수주, 수전해 설비는 독일 Thyssen Krupp이 제공)를 2025년까지 건설하고자 한다. 아람코는 10년 내에 세계 최대의 블루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Jafrah 가스전(매장량 약 60조m³)을 개발하는데 약

1,100억불을 투입하여, 2024년 첫 생산을 하고자 한다. 아람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회사차원에서 \$15억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2년 11월 SLB 및 Linde와 2027년까지 동부 주의 산업도시 주바일(Jubail)에 연간 900만톤(이중 아람코는 600만톤 담당)의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2035년까지 사우디 영토내에 4,400만톤의 탄소저장 시설을 구비할 계획이다.

사우디 정부의 또다른 클린에너지 활용 노력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는 동부 주(Eastern Province)의 해안에 대형 원전 2기(총 2.8GW)를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2022년 초부터 입찰을 위한 절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22년 3월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K.A.CARE, 2010년 설립,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정책개발, 안전규제, 국제협력 수행)에서 원전건설 프로젝트 이행 업무(입찰·건설·운영)를 분리하여, 공기업 형식의 Saudi Nuclear Energy Holding Company(SNE, 2022년, 이사회 의장은 에너지부 장관, 부의장은 K.A.CARE 원장)를 설립했다. SNE의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 9월 우선협상 대상 기업이 선정되고, 12월에 계약사와 계약이 체결되고, 2033년 1호기의 상업운전, 2034년에 2호기의 상업운전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SNE측이 주관하는 입찰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2023년 9월 우선협상 대상기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전이 도입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수출 증대, NDC 달성 촉진, 향후 산업발전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에 대응, 담수 플랜트에 필요한 전력 확충, 잉여 천연가스의 수출 등 여러 가지 용도에 기여하게 된다. 다른 한편, 대형 원전 건설에 소요될 7-8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주하게 될 현실로서 SMR의 상용화 시작, 글로벌 오일가격의 하락, 그린 에너지 확산, 대형원전이 필요로 할 대규모 송전망 건설비용, 사우디 안보 상황의 불확실 등도 사우디 정부의 원전정책에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광물 자원의 본격적 개발)

미래의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화석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저탄소 시대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전기차, 전기 저장 등을 위한 기술과 광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30개 이상의 광물 및 금속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정부는 그동안 화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아프리카와 남미에 비해 국내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제시된 비전 2030은 사우디 광업을 에너지, 석유화학에 이어 사우디 산업개발의 3대 축(탄화수소에너지, 석유화학, 광업)으로 지정했다. 2020년 5월 산업광물부 차관은 광업이 2030년까지 21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고, 2023년 1월 산업광물부 장관은 광업부문의 GDP에 대한 연간 기여가 현재의 \$170억에서 2030년 \$640억으로 4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지나는 테티안 벨트(Thethyan belt)에는 상당한 양의 비금속이 매장되어 있고, 사



우디 매장 7대 광물은 금, 비금속(구리, 은, 아연, 니켈), 인산염, 칼륨, 보크사이트(고령토), 마그네사이트, 알루미늄으로 추정되어 왔다. 사우디 정부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지역은 5,300개에 이르며, 탐사 결과는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8년 사우디 정부는 국내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가치가 약 \$1.3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광물자원의 본격적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사우디 경제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광물개발을 위해 자체 투자 확대와 더불어,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광물개발에 앞선 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1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지질탐사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업투자법(Mining Investment Law)을 발효시켰다. 2022년 6월 왕세자는 광업발전에 대한 R&D를 새로운 주요 국가과제로 선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광업발전에 투입하려는 자금은 10년 동안 외자 \$320억을 포함하여 \$454-\$480억에 이른다. 2023년 1월 사우디 산업광물부 장관은 2030년까지 사우디국 영광업공사(Ma'aden-지분의 67%를 PIF가 보유) 포함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를 약 \$1,700억이라고 밝혔다. 이를 주도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2023년 1월 제2차 광물포럼 계기에 Ma'aden과 국부펀드 PIF 간에 지분을 51:49의 국제광산자산 투자회사(자본 약\$32억)를 설립했다. 이와 동시에, Ma'aden은 Ivanhoe Electric Inc.의 지분 9.9%(\$1.26억) 매입 및 사우디 내 광산프로젝트(구리, 금, 은 탐사) 관련 50:50의 합작투자, Barrick Gold Corp.과 2건의 합작투자(사우디 서부 Jabal Sayid 및 중부 Umm Ad Damar 지역 구리 탐사)에 서명했다. 아울러, 산업광물자원부는 최초로 해외투자자들에게 수도 리야드로부터 200km 이내 지역에서 구리, 아연, 금, 은, 납 매장지에 대한 탐사 허가권 옥션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광물개발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유인하기 위해 매년 1월 초 광물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관광·스포츠 산업의 확대)

사우디 정부,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부문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관광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비전 2030의 주요 목표인 경제 다양화 달성에 필수적인 축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2030년 관광부문의 비중이 GDP의 10%로 성장하고, 1억명의 관광객이 유치되어(2023년 2,500만 외국인 입국 기대), 세계 5위의 관광대국이 된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총\$6조를 관광부문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관광업 진흥을 위한 노력들은, 크게 관광부, 관광청, 관광개발기금의 3개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사우디 관광은 경제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엔진이 될 것이다.

2023년 2월 사우디 관광장관에 따르면, 2022년도 방문객(visitors) 수는 9,350만명이었다(총소비액은 SR1,850억). 이는 COVID-19발생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121% 증가

한 것이었다(2021년 대비 93%증가). 이중에서 외국인 방문자는 1,650만명이었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방문자 기준으로는 세계 17위의 관광대국으로 평가되었다. 관광부 장관이 밝힌 바로는, 2022년 관광부문의 산출이 SR1,850억(\$493.3)로서 전년 대비 93%증가한 것이고, GDP \$1조에 대해 4.93% 기여했으며(당초 목표는 5.3%),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88만개로서 전년 대비 15%증가한 것이었다. 현재 관광업의 일자리 중 44%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광업 발전이 사우디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필요한 기술의 발달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선입견을 바꿔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서쪽 해안은 홍해를 마주하고 있고, 배후 내륙에 오랜 역사를 가진 타북, 알 올라, 메디나, 젯다, 메카, 타이프, 압하 등 큰 도시들을 갖고 있어,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관광업 육성에 불리한 자연조건과 대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점적인 '종교적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2개(메카의 Masjid al-Haram/그랜드 모스크와 메디나의 Al-Masjid an-Nabawi/예언자의 모스크-나머지 1개는 예루살렘 Al-Aqsa Mosque)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점이다. COVID-19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무슬림의 대순례자는 250만명이었고, 소순례(Umrah: 연중 상시 순례)자는 1,915만명이었다. 사우디 관광청(STA)은 순례자들이 사우디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Nusuk를 2022년 9월 출범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2030년 순례자가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독특한 자연 자원과 문화적 유산을 관광산업의 육성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 관광자원 복원,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국제적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2019년 사우디는 관광비자를 도입했다. 현재 관광비자 발급 대상국가 수는 한국을 포함 49개국이고 체류 허용기간은 90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eVisa)이 가능하다. 사우디 외교부는 2023년 1월말부터 사우디아와 저가 항공사 Flynas를 이용하는 사우디 경유 승객에게 체류기간 4일의 무료 경유 비자도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둘째, 사우디 정부는 네옴, 레드 시, 젯다, 키디야, 디리야, 알 올라 등 대규모의 방문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사우디 정부는 관광산업과도 연관된 목적 하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종교 분야의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1-22년 사우디 국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종교 행사〉

종류	행사명	내용
스포츠	FIFA 아랍컵	2021년 11월, 아랍 16개국 대표팀 참가
	Formula1	2021년 12월(젯다), 왕세자 참관
	세계여성태권도	2021년 12월(리야드), 세계 최초 여성대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안보

	오픈챔피언십	
	여성자동차랠리 (Rally Jameel)	2022년 3월, 사우디 개최 최초 여성자동차 랠리
	LIV골프인터내셔널	2022년 6월, PIF의 후원 첫 대회 개최(런던 센추리온 골프클럽)
	여성 프리미어리그	2022년 9월, 사우디에 최초로 출범, 8개팀 참가, 2021-22년 시즌에 사우디 여성팀은 16개
	전국 체전	2022년 10월, 사우디 최초 개최(리야드)
	One Championship	2022년 11월, 사우디에 라이브쇼 및 첨단훈련장비 도입 계획 발표
	월드태권도그랑프리 파이널	2022년 12월, 79개국 선수들 참가
	사우디 다카르랠리	2022년 12월, 오프로드 레이싱, 4년째 사우디 개최(안부-담맘)
	4개국여자축구대회	2023년 1월, 4개국 친선 대회(동부 주)
	여성 아시안컵	2026년 개최 예정, 사우디도 개최 신청중
	남자 아시안컵	2027년 개최 예정, 사우디도 개최 신청중
	동계 아시안게임	2029년 사우디 개최 확정, 서아시아 최초
	하계 아시안게임	2034년 사우디 개최 확정
엔터테인먼트	월드컵 축구	2030년 그리스, 이집트와 공동 개최 신청 검토중
	젯다 사진전	2022년 3월 사우디예술협회 주관 최초 국제사진전
	제2회 젯다시즌	2022년 5월 개시, 2개월간 129개국에서 외국인 100만명, 내국인 500만명 방문
	국제오페라축제 Gamers8 및 넥스트 월드포럼	2022년 6월 사우디 최초, 공연 및 전시
	팰콘&헌팅 전시회	2022년 8월 개최
	KCON	2022년 9월, CJ ENM과 협력하 개최
	제2회 디리야시즌	2022년 10월 개시(제1회: 2019),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1727년 사우디 제1왕국건립 지점인 앳-투라이프 지구(유네스코 문화유산)를 복구완료 후 12월초 개방
	디리야 상젤리제 거리	2022년 10월, 디리야개발청 발표, 현대식 미술관, 컨벤션 센터, 오페라 하우스, 모스크 등이 프랑스와의 협력
	제3회 리야드시즌	2022년 10월 개시, 15개 엔터테인먼트 구역, 7주차에 방문자 600만명 기록
	RUSH	2022년 11월, 세계 게이머들 초청, e스포츠·게임 행사
	음악 오디션	2022년 12월 사우디 최초 제작·방영, Saudi Entertainment Authority-MBC간 협력 제작
	제2회 홍해국제영화제	2022년 12월 젯다 개최(제1회: 2021), 61개국에서 131편 출품
	낙타페스티벌	2022년 12월 낙타클럽이 주최
종교, 철학	종교인 포럼	2022년 5월(연례), Muslim World League가 최초로 기독교, 동방정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지도자들이 참석, 공통가치 토의
	리야드 철학컨퍼런스	2022년 12월(연례), Riyadh Philosophy Conference
관광	지속가능관광글로벌 센터 설립추진	2021년 12월 발족 준비 워크숍 개최, UNWTO와 별개의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추진중
	세계여행관광이사회 (WTTC)	2022년 11월, 제22차 글로벌 서밋 리야드 개최

※ 필자가 언론에 보도된 행사들을 2022년말 기준으로 도표화

이와 함께, 사우디 정부는 관광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확장하는 전략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사우디 게임 인구는 현재 인구의 70%인 2,450만 명이며, 소비는 2030년까지 \$6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 모하메드 왕세자는 게임·e스포츠 전략을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86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부문을 매출 \$133억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e스포츠 글로벌 허브가 되게 하려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e게임회사들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PIF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 사우디 영화산업도 중요한 육성 대상 산업이다. 2022년 2월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영화제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2.1억의 예산을 투입해 콘텐츠 개발과 제작, 배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네옴, 홍해, 알 울라를 촬영 장소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무대 설치, 숙박시설 건설, 스튜디오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보수적 이슬람 사회의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서 기술했듯이, 2022년 5월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은 항공포럼 개막 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교통·물류 부문에 2030년까지 \$1,000억 이상을 투자하여, 그 때까지 항공 이용객을 현재 보다 3배가 많은 3.3억명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를 1억명, 화물수송은 500만톤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국제항공노선은 250개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넷째, 2021년 9월 사우디 전통예술을 보존·전파하기 위해 기여할 왕립전통예술원(Royal Institute of Traditional Arts)을 개원했다.

사우디 관광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이미 지표로 증명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원을 투입할 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우디 자연조건이 관광객 유치에 이상적이지는 않다. 매년 4월에서 9월까지의 날씨가 매우 더워 하뜨(특정 기간의 대순례) 또는 움라(여타 연중기간의 소순례) 등 종교적 이유 또는 사업상 방문자 외에 순수한 관광목적의 방문자는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 사회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외국인들의 고정 관념은 여전히 사우디 관광업 확장에 유리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미지 개선 노력에 있어, 사우디의 종교적, 정치적 요소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우디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 막대한 재원이 과연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위험도가 아직 높아 보인다.

(GCC의 공동시장 지향 및 FTA 추진)

GCC회원국들은 내부 시장통합을 추진 중이고, 몇몇 비회원국 국가와 FTA체결 협상을 진행 중이다. 6개의 왕정국가들의 명목 GDP는 \$2.25조, 1인당 GDP는 평균 \$34,300이다. 현재 이들은 각자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말 GCC는 탈석유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FTA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개의 우선 협상대상국을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GCC와 협상국들은 협상 범위와 상품시장 개방률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2023년 5월말 기준 협상을 매듭지은 국가는 없다. 현재 GCC 국가들은 한편으로 국내 산업 육성을, 다른 한편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한편, GCC국가의 경제들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유사한 탈석유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므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 상호 경쟁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간에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들의 경쟁은 결국 친기업적 개혁을 동반하게 되므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으며, 공동시장의 출범 및 경제파트너들과의 FTA 체결이 이루어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해질 것이다.

라. 사우디 경제의 위협요소

(국가안보: 핵심 산업시설의 노출)

어느 국가에서든 국가안보 위기는 가장 위협적인 경제안보 위기가 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전쟁 상태든, 전쟁이전 상태든지 불문하고 상존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우디 국가안보는 타국과 비교할 때, 고유한 특성이 있다.

첫째, 최근까지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국가(이란, 시리아)와 단체(후티 반군, 헤즈볼라, ISIS, 무슬림형제단)로부터 동시에 오고 있었다. 이들의 지리적 분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북-동-남으로 둘러싸고 있어(초승달 모양),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이러한 위협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두되었는데, 이란 및 헤즈볼라의 위협은 1979년 이란 종교혁명 이후, ISIS 위협은 2003년 이라크 정권 붕괴이후, 여타 단체들의 위협은 2011년 아랍 스프링 발생 이후였다. 2019년 9월 사우디 동부 주의 석유시설(Abqaiq-Khurais)이 공중 습격을 받았을 때, 이란의 무력 위협은 더욱 두려운 현실이 되었고, 동시에 실력으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의 대중동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우디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는, 금년 들어 이란, 시리아,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대외정책 변경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 비전 2030 이행에 집중하려 한다; 미국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하는 외부위협을 줄여야 하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려 한다; MBS(왕세자)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이미지를 개선하려 한다. 다만, 많은 사우디측 인사들은 2023년 3월 '베이징 3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대사우디 전략 및 대중동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제2차 대전 종료 이후 국가안보를 미군에 크게 의존해왔다. 무기와 정보, 훈련 측면에서 미군의 역할은 매우 크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토 크기와 주변의 잠재적 위협요소들에 비하면 방위력(약 30만)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우디와 미국 간 관계는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어 과거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의 편에 서려는 것은 아니며, 자국이익 중심주의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전쟁 상태든 전쟁 이전 상태든 사우디아라비아는 구조적으로 국가안보의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로는, ①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이 소수의 도시로 제한되어 있어, 이들이 집중 공격을 받기 쉽고, 이들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곧 국가안보가 붕괴되게 된다는 점, ②국가경제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 경제시설(오일, 가스 관련 시설)과 국민 생존에 직결되는 식수시설(담수 플랜트와 송수관)이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안보위기가 곧 경제안보 위기이고, 경제안보 위기가 곧 국가안보 위기가 된다.

넷째,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유지 차원에서는 다행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안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1979년 이란의 종교혁명의 여파로 사우디 내의 소수파인 시아파(약 10%)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 주(Eastern Province)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극단주의 광신도 수백명의 메카 이슬람 사원 점거 사건, 1987년 메카에서 이란의 성지 순례자들이 일으킨 시위가 있었으나,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볼 정도의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다. 정권안보에 대한 도전은 2011년 튀니지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의 여파가 사우디 주변국에 미치면서 커졌다. 이에 대해, 사우디 왕실은 자국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튀니지 대통령 망명 접수, 이집트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 예멘 사태에의 무력 개입, 바레인 정부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 이란(2016) 및 카타르(2017)와의 단교 등으로 대응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현재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는 그의 정책들이 인구의 67.5%가 35세 이하인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살만 국왕이 사망한 후 그가 왕위를 승계하려 할 때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내 요소에 의한 안보위협이 낮은 이유는 앞서 기술한 대로 ①강력한 사회통제 체제 구축, ②왕실의 대체로 올바른 정책을 포함한 통치 정당성 유지, ③안보의 취약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④종교계와 업계를 포함한 사회 기득권층의 단합, ⑤사우드 왕가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 때문으로 관찰된다.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사우디 국가안보 환경은 급속히 변화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사우디 정부의 대응도 변하고 있다.

첫째, 중동에서 아랍민족주의의 영향이 현저히 약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 이슬람(Sunnism)을 매개로 주변국과 연대를 구축하되, ‘실용주의적 자국안보 우선주의’가



강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개의 이슬람 성지 수호국으로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은 하되(2002년 Arab Peace Initiative 견지), GCC회원국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것을 용인하고, 스스로도 점차 이스라엘과 비공식 교류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22년 3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는 The Atlantic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익을 공유하는 잠재적인 동맹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공식 관계수립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2023년 3월 사우디-이란간 관계 정상화 합의도 사우디-이스라엘 관계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3대 적(이스라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나로 간주해왔던 이란과 2021년부터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을 이라크의 중재로 시작하여, 2022년 4월 제5차 협상까지 가졌다. 상호간 이해관계와 이란 내의 대규모 소요사태(소위 히잡 시위) 발생으로 인해, 협상 동력이 약화되는 듯했지만, 오만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나가다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 하에 북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간 관계정상화는 사우디 안보에는 물론, 사우디-미국 관계, 중국의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이란-여타 아랍국가들 간 관계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중동에서 미국-중국간 영향력 경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미국의 후퇴, 중국의 약진으로 요약되고 있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 아랍연합군(10개국)을 결성하여 예멘 후티(the Houthis) 반군과 교전을 해왔으나, 2020년 초부터 출구를 모색하다가, 2021년 3월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목표로 ‘예멘 평화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2022년 4월 초 UN 사무총장 특사 Han Grundberg의 중재 하에 교전 당사자들은 2달 기한의 휴전에 들어갔고, 2차례 합의(6월, 8월)를 연장할 수 있었다. 별도로 4월초 리야드에서 GCC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하에 예멘인간 대화(Yemeni-Yemeni Consultation)가 개최되었고, 예멘의 후티반군을 제외한 다수의 정파가 참가하는 대통령리더십위원회(PLC)가 출범했다. 그러나 예멘 남부지역의 정치체인 STC(Southern Transition Council) 등 여러 정파들간 이익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후티반군은 10월초 합의 종료시점이 되자 재연장을 거부하면서, 우선 예멘 내부에서 공격을 재개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단 직접 후티반군과 교전하는 상황은 피하자는 목적 하에 후티반군과의 양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후티반군간 양자협상에 진전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사우디와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이란의 후티반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사우디-후티반군간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남부지역의 독립 추구 등 예멘 내부의 부족들 간 갈등 때문에 조만간 예멘 전체의 평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넷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이래 테러단체들로부터 받는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2001년의 9.11사건에 연루된 19명 중

에서 사우디인이 15명(그외 UAE2, 이집트 1, 레바논1)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킨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사실 자신은 그 이전부터 테러단체들에 의한 공격의 피해자였다. 1979년 11월 Juhayman al-Otaybi가 인솔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과 al-Jama'a al-Salafiyya al-Muhtasiba가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를 점령했던 사건,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력을 키우던 Hezbollah Al-Hejaz가 1996년 6월 동부 주에서 일으킨 Khobar Towers 폭탄 공격, 1995년 11월 리야드의 미군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Al-Qaeda가 배후 조종하여 2003년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한 테러 공격 등이 있었다. 2001년 9.11사건 이후에는 Al-Qaeda on the Arabian Peninsula(QAP)가 주도한 가운데 2003년 5월 리야드 주거단지 폭탄 공격(39명 사망), 11월 리야드의 다른 주거단지 폭탄 공격(17명 사망)이 발생했고, 2013년까지 전국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ISIS 주도의 테러공격들을 받았다(Ash-Sharqiyyah, 젓다, 메디나). 이러한 각각의 테러단체들의 행동 동기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세속적인 것들을 망라하고 있어 다양했다. 2017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합의하여 극단주의 사상의 전파를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구로 Etidal(아랍어 의미는 moderation, evenness, equilibrium)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대체로 OIC회원국)이 IS에의 대응 및 반테러 활동을 위한 군사적 연합조직 Islamic Military Counter Terrorism Coalition(IMCTC)을 설립(현재 41개국)하여 운영해왔다.

다섯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중시하면서도, 국방협력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자주국방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는 무기조달 측면에서, 2030년까지 무기의 50%까지를 국내 생산하겠다는 비전 2030의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미군은 바레인에 있는 미해군 중부사령부(Naval Forces Central Command: NAVCENT)와 제5함대를 이용하여 중동의 해양안보를 지키고 있고, 이를 위한 사우디와의 군사협력은 지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미군은 201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도 참가하는 가운데, 중동 내 최대의 해상훈련인 IMX(International Maritime Exercise-60여개국 참가)를 2년에 1회씩 개최해오고 있다(2022년 1월말 제7차 훈련: 60개국 함정 약 50척, 9,000여명 참가). 이러한 미군의 걸프 활동의 중심 타겟은 이란이며, 그 목표는 사우디-이란간 관계 정상화 합의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다. 미국은 사우디-이스라엘 간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사우디-이란 간 관계 정상화가 여타 GCC회원국들의 대이란 관계 및 GCC회원국들의 CMF 및 IMX에 대한 참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찰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IMX(해군훈련) 및 Red Flag(공군훈련) 외에도, 같은 해 25차례에 걸쳐 타국들(미국 포함 17개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사우디 정부의 국방협력 다변화에서 협력 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도 포함된다.

여섯째, 사우디아라비아는 GCC국가들과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2016년부터 Arab Gulf Security 대테러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고, 2021년에는



연합군사령부(Unified Military Command: Joint Peninsula Shield를 개명)를 리아드에 열었다. GCC는 장래 20만의 연합방어군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란, 후티 반군, 무슬림형제단과 이들에 대하여 공동 대응전선을 구축해온 미국과의 정치관계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회원국들 서로간에 일치하지 않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안보는, 2023년 3월 이란과의 양자관계 정상화, 예멘 후티 반군과의 양자간 휴전협상 진전, 2011년 단교되었던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2023년 4월), 레바논 헤즈볼라와 접촉, 중동 전체적으로 테러단체들의 세력 위축, 미국 및 GCC회원국들과의 지역안보협력 유지, 사우디 자체적 방위력 증강 등으로 신속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및 일부 프락시 교전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사이버 해킹이 지속되고 있고, 예멘 내에 전체적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미군의 대중동 군사적 관여가 지속 감소되고, 2024년 4월 수단 내부 동요 발생,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의 해상 안전 미보장 등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 아울러, 사우디 국방부가 2030년까지 무기 국산화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현재 사우디 국내 첨단제조업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 무기제조업체들이 사우디와의 협력을 주저하게 만드는 역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유가 급락 가능성: boom and bust cycle)

국제유가 전망은 사우디 경제안보를 전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오일 부문 소득에 크게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는, 그 부침이 유가등락과 직접적 상관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과거 유가변동의 트랙을 보면, 고유가는 1973년 원유공급 엠바고(73년 3개월 만에 글로벌 유가가 4배 폭등)로 시작한 원유공급 축소와 80년대의 이란-이라크 전쟁 및 국제경제 호황으로 유지되다가, 글로벌 원유공급 급증으로 1986년 유가 급락이 나타났다(1985년 11월 \$30pb→1986년 7월 \$10pb). 중국경제의 고성장으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고유가가 시작되었다가, 2008년 국제신용 위기로 2009년 잠깐 완화된 후 회복되었지만, 2010년대 초부터 미국의 셰일오일 등장이 가져온 글로벌 산유량의 과잉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재차 유가 하락을 가져왔다(2014년 6월 \$120pb→2015년 3월 \$45pb). 그러나 유가 급락에 따른 셰일오일 기업들의 타격,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 후 국제메이저들의 업스트림 분야 투자 감소, OPEC Plus(2016년 11월 출범)의 산유량 조절 등으로 2017년부터 유가는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일시적 유가 급락이 왔다(브렌트유 가격: 2020년 1월초 \$70pb→2020년 4월 21일 \$9.12pb). 그렇지만 2021년 초에는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2022년 오히려 국제경제의 부분적 회복으로 인한 원유수요 증가, 업스트림 부문에의 투자 부족, 국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산유능

력 후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OPEC Plus의 인위적 공급량 조절이 겹쳐, 미국 연준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축과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등 유가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유지되었다. 2022년 6월 \$122.71pb(브렌트유)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던 글로벌 유가는, 2023년 1월 \$82.5pb로 내려왔고, 3월 20일 \$73.79pb로 저점을 찍은 후, 5월 1일 \$79.31pb를 기록하여 대체로 \$70-80pb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유가 안정과 재정균형 유지를 위해 최대의 외교력과 레버리지를 행사해왔다. 미국의 셰일오일이 시장에 범람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2014년 11월 OPEC회원국들이 모였지만, 석유시장 안정화에 합의하는 대신, 모든 것을 시장의 흐름에 맡기기로 하자 유가가 더욱 폭락했던 데서, 산유국들은 교훈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사우디와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산유국 석유장관들이 도하에 모여, 원유재고 조절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감산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이어서 2016년 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양국의 개입 없이는 유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9월말 IEF(알제리) 계기에 OPEC는 100만bpd의 감산 합의안(Algiers Accord)을 만들어냈고, 11월 OPEC회의(빈)에서 그 안이 잠정 채택되었다. 2주후 사우디 중심의 OPEC(13개국-1.2mbpd)과 러시아 등 다른 10개 산유국(0.6mbpd) 간에 총 178만 bpd를 감산하는 역사적 합의(Vienna Alliance, Declaration of Cooperation, OPEC Plus 공식출범)가 이루어졌다. 그 여파는 12월 이후 국제유가 회복으로 나타났다.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폭락하자 2020년 4월 OPEC Plus는 970만bpd의 감산(5월부터 2개월간 적용)에 합의했다(2개월 이후부터 6개월간 800만bpd로 감산, 그 이후 16개월간 600만bpd로 감산). 여타 산유국들도, 석유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자연적 감산을 포함 감산 대오에 동참했다.

세계경제가 팬데믹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선진국 중심의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유가가 \$70pb대로 상승한 가운데, 2021년 7월초 열린 OPEC Plus회의에서는, ①2021년 8월부터 매달 40만bpd를 증산하여 연말까지 총 200만bpd 증산, ②2022년 4월 만료되는 기존 OPEC Plus 합의안의 2022년 하반기까지 연장, ③2022년 하반기(9월)까지 매달 40만bpd 증산으로써 2020년 4월 합의됐던 970만bpd 감산의 완전 회복이 합의되었다. 세계경제 회복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맞물려 유가는 3월, 5월, 6월 평균 \$110pb 이상을 유지했다. 미국은 사우디측에 원유증산을 요구하고 나섰고, 7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OPEC Plus가 68만bpd 증산(기존 합의는 40만bpd 증산)키로 하는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9월 OPEC Plus는 다시 월별 증산량을 10월의 당초 증산목표치에서 10만bpd를 축소(8월 산유량 목표치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OPEC Plus는 2022년 10월초에는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2022년 8월 산유량 대비 200만bpd를 감산키로 했고, 2023년 4월 자



발적 감산 형식으로, 러시아와 OPEC소속 8개국이 5월부터 연말까지 총 165.7만bpd를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고유가’ 유지에 집착한 것은,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현재 고유가 유지 필요성이 절박함을 말해준다. 전문가들은 OPEC Plus가 2022년 하반기 산유량 감소결정을 내릴 당시 목표유가를 \$100pb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2022년 말 시점에서, 전문기관들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유가가 Brent 기준으로 2023년에는 \$90pb대, 2024-26년간에는 \$80pb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23년 5월 현재 실제 글로벌 유가는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항하여, 유가의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해 OPEC Plus는 지속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유가가 전문기관들의 당초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 미국 및 일부 산유국들의 증산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 정부는 2023년에도 재정흑자(\$43억)를 예상하지만, IMF는 GDP의 1.1%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 경제가 글로벌 유가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사우디 비전의 목표연도인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사우디 정부는 비전 이행과 유가하락 사이에서 ‘시간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비전 이행’이 승리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일부문 소득을 비전 2030 이행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은 이미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유가가 급락하게 되는 의외의 상황이 또 올지는 알 수 없다: 단기간의 팬데믹; 글로벌 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 신용 위기;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기술 및 배터리 기술의 고도화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전되어 오일수요를 빠르게 대체; 소형원전(SMR)의 상용화 성공 여부

(세계 식량난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량 확보가 경제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다. 앞서 기술했듯이 사우디 국토는 1.6%만이 경작 가능한 토지로서, 많은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남서부 Asir지방(평균 140mm)을 제외하면, 연간 평균 강수량이 100mm를 넘지 않는다. 사우디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 관개시설 확충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대대적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 지원은 대량의 농지 증가 및 농업생산 증가를 가져왔다. 경작지는 1980년 약 43.5만 헥타르에서 1990년 150만 헥타르로 급증했다. 일부 식량의 자급 또는 수출(밀, 대추, 수박, 가금류, 계란, 우유 등)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6대 밀 수출국이 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막에서의 지속적 현대적 영농은 해충(예: 식물 기생성 선충) 개체 수의 증가와 대수층의 수자원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1992년이 되자, 사우디 농업전략은 오로지 정부의 대규모 직간접 보조금에 의존해야만 했다. 제7차 경제개발계획기간(2000-05), 사우디 정부는 농업에 총 \$54억을 투자하여, 농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8차 경제

개발5개년계획 기간(2006-10)에는 지하수 고갈 문제 부각으로, 국내 농업생산의 지속적 증대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 등에 투자하여(이를 위해 2011년 농축산투자회사인 Saudi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vestment Company 설립), 그 지역에서 농지를 확보하고, 경작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보완했다.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3월 국내에서 신농업 계획에 착수하여, 국립농업정보센터 설립, 최신 기술을 이용한 농업용수 사용의 합리화, 하나 이상의 농산물유통기관 설립, 대추야자 유통 촉진 등 사업들을 실시했다.

식량안보와 농업육성은 사우디 정부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공급망 교란사태가 빈발하고, 유가 폭락으로 오일부문 소득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 시급성은 커진다. 사우디 정부는 그 해법을 전통적 농사에서 보다는, 신농법에서 찾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사우디 환경물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는 유기 농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도입했다. 유기 농업을 3배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9년 1월에는 환경물농업부가 \$3.46억 규모의 수산업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그 중점을 국내 수산업 클러스터 개발에 두기로 했다. 사우디 정부는 앞으로도 15년간 수산업 개발에 약 \$80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2030년까지 국내 어류수요의 65%(60만톤)를 국내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2020년 설치된 사우디 농업개발기금(Agriculture Development Fund)은 채소재배 온실 농업, 농산물 수입기업 지원, 농업기술 개발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2020년 8월 SALIC와 국영해운회사 Bahri의 합작으로 국영 곡물회사(National Grain Company)가 설립되어(\$1.98억 투입), 식량의 교역, 유통, 저장을 담당하고, 중부 홍해 연안의 얀부(Yanbu)에 신규 곡물 터미널을 조성했다. 이 회사는 특히 전략적 식량 수입의 50%를 담당한다. 2020년 3월 COVID-19 확산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재차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농산물의 80%를 수입하는 대상국은 주로 독일, 미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다. 사우디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 수입선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국내에서 신기술 영농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진행을 감안할 때 더욱 더 타당한 식량안보 확보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저렴한 농법은 아니며, 산업 규모로 경영하고 사우디 식량안보 확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 투입과 추진 가속화가 필요하다. 한편, 2023년 4월 노출된 아리조나 Sonoran사막의 사우디 알팔파 농장 관개 급수를 둘러싼 마찰 사례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에서 안전한 영농기지 확보 노력을 정교하게 추진해나갈 필요도 있다.

5. 사우디 경제안보와 사우디 비전2030, 그리고 한국경제



사우디 경제의 최대 위협은 급속한 유가 하락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유가 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해야 할 불가피한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기후변화への 대응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로 인해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 세기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에너지 전환은 지금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중반 고유가 국면에서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예측-이제 지구상에 저유가 시대는 끝났다-이 2014년 하반기부터 무색해졌던 경험이 있고, 24년간 사우디 석유장관을 역임했던 Ahmed Zaki Yamani가 한 말도 다시금 사우디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석기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일 시대는 세계에 오일이 바닥나기 훨씬 전에 끝날 것이다(The Stone Age didn't end for lack of stone, and the oil age will end long before the world runs out of oil).”

사우디 정부로서는, 지금 열려 있는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하여, 탈석유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탈석유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우디 정부의 이러한 각성은 이미 1980년대에 생겼지만, 포괄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6년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사우디경제개발위원회(Saudi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CEDA)에 의해서였다. 2016년 4월의 ‘사우디 비전 2030’이 그것이다. 그 시점은 2015년 1월 부친 살만 국왕이 즉위한 지 1년여 만이었다. 약 50년간 리야드 주지사를 지냈던 살만 국왕은 사우디 각 부문의 부패를 포함 문제점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즉위 후 제2왕세자 겸 CEDA위원장인 아들에게 전국적·포괄적 개혁을 추진토록 일임한 것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이 이전의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방식을 포기하고, 15년간의 장기적 경제사회 발전 계획으로 고안된 것은, 그만큼 현실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상정한 목표가 원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5-6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우디 정부는, 그 시간을 비전 2030의 이행에 온전히 투입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저유가 상태 장기화다; 개혁 추진을 위한 인적 쇄신과 제도와 조직구조의 정비가 필요했다; 대외관계가 원만치 못한 기간이 있었다; 약 1년 반 동안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글로벌 팬데믹의 발생이 있었다. 이러한 비전 2030이행의 지연은 사우디 경제안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우디 왕실의 안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2021년 초부터 사우디 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본격적으로 큰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사우디 정부의 대외정책이 주변국에 대해서는 화해·평화·협력을 지향하고,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다변화를 추구했다; 비전 2030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 기업과 외국기업들에게는, 특히 건설부문에서 프로젝트 발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의 취업 확대와 능력 배양,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현재 사우디 정부의 거의 모든 행정을 포괄하는 틀이 되어 있다. 각 분야 지표들이 목표점에 도달하면, 2030년 사우디 경제·사회는 현재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고, 경제안보도 크게 강화되어 있을 것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의 3대 축과 세부 목표〉

3대 축	세부 목표
활기찬 사회	뿌리가 강한 사회(종교), 성취감 있는 삶의 사회(문화), 기반 튼튼한 사회(공공복지) 2030년까지 성지순례자 수용능력 증대(8백만→3천만), 문화·엔터테인먼트 활동지출 제고(2.9%→6.0%), 평균 기대수명 연장(74세→80세)
번영하는 경제	기회에 대한 보상(직업훈련, 중소기업육성), 장기적 투자(민간·신성장 부문 육성), 비즈니스 환경개선(경쟁력 제고), 지정학적 장점 활용극대화(무역·투자증진) -2030년까지 실업률 축소(11.6%→7%), 중소기업의 GDP기여도 제고(20%→35%), 여성고용 비중 제고(22%→30%), 민간부문의 GDP기여도 제고(40%→65%), 비석유 부문 수출 비중 제고(GDP대비 16%→50%)
진취적 국가	효과적 통치체제,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 -2030년까지 비석유 재정수입 증대(SR1,630억→SR1조), 가계 저축비율 제고(소득 대비 6%→10%), 비영리 부문 생산제고(GDP 대비 1%이하→5%)

※ 외교부 개황 책자 2022

사우디 경제안보의 구성요소들(SWOT)은 그 상태에 따라 우리 경제안보와 무관, 상반 작용, 공조 작용을 보일 것이다. 사우디 경제의 장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한국경제에 주게 될 영향은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 정치의 안정은 사우디 경제의 장점이고, 당분간 사우디 정치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만일 불안정에 빠지게 되면 그 정도가 심화될수록 한국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우디 경제 SWOT 구성요소의 상태 변화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예상〉



SWOT	구성요소	일정 수준의 영향	정도 심화시 영향
강점(S)	저렴·풍부 오일생산	감산정책: 부정적	매우 부정적
	저렴·풍부한 외국노동력	진출기업에 유리	진출기업에 더욱 유리
	안정된 정치체제	긍정적: 좋은 투자환경	지속 긍정적
	지리적 위치	단기 부정적	중장기 긍정적
약점(W)	비석유 부문 빈약	양면성: 투자기회	부정적: 협력 제한적
	내국인 숙련도 부족	부정적: 고용곤란	매우 부정적
	정부기관 비효율성	부정적: 행정지체	매우 부정적
기회(O)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	긍정적: 건설수주	매우 긍정적
	비오일제조업부문 육성	긍정적: 투자기회	매우 긍정적
	재생에너지(RE) 확대	긍정적: RE 확보	매우 긍정적
	광물자원 본격개발	긍정적: 광물확보	매우 긍정적
	관광문화산업 육성	긍정적: 문화콘텐츠	매우 긍정적
	GCC FTA체결 추진	긍정적: 시장개방	매우 긍정적
위협(T)	안보위협	부정적: 산유량 감소	매우 부정적
	유가하락	긍정적: 수입가 하락	부정적: 원유시장교란
	식량부족	영향 별무	부정적: 산유량에도 영향
	정치적 불안정(발생시)	부정적: 유가상승	매우 부정적

※ 2023년 5월 필자 작성 도표

6. 사우디 여론 주도층의 구조

한 국가에서 국민여론이 형성되는 데에는,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러한 주도층의 언행이 어떤 틀 속에서 행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틀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이 담고 있는 규정과 그 정신일 것이다. 사우디 통치기본법(The Basic Law of Governance, 1992)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아랍 이슬람 주권국가(sov​er​eign Arab Islamic state)로서, 헌법은 지고하신 알라의 경전(Almighty God’s Book, the Holy Quran)과 그분의 사도(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순나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초로 하는 무슬림의 생활방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디스(Hadith)에 나오는데, 9세기에 체계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이론이 있다. 이것이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이고, 국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왕령(Royal Decree)을 발령하는데, 이를 샤리아와 구분하여 규율(regulations)이라고 부른다. 샤리아는 항상 왕령 보다 상위에 있고, 샤리아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종교학자들이 합의한 바(Izma)에 따르고, 그 3가지로도 가려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추해석(Qiyas)에 따른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우디 여론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즉, 사우디 여론은 이슬람, 왕정, 국론통일, 애국의 틀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우디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는 몇 개의 그룹이 있다. 첫째, 여론 형성에 절대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은 왕실이다. 이는 군주제라는 정치체제상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둘째, 일부 왕가 인사와 다수의 테크노크라트가 고위직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셋째, 여타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이슬람 지도부, 부족 지도부, 경제계가 있다. 사우디 왕정이 유지되는데 있어 왕실에 대한 이들의 협조는 긴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들은 직접 언론에 의견을 표출하여 국민여론화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또는 관례상 이용되어온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과 왕실에 의견을 전달해왔다. 넷째, 전통적으로 여론 형성층이 될 수 없었지만, 오늘날 사우디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대상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5세 이하 젊은층이다. 이들이 의견이 조직화되어 표출되지는 않지만, SNS를 통해 파악되는 그들의 사회·문화·경제적 욕구는 정부가 정책에 가급적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강한 지지층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기본적으로 서방에서와 같은 순수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나 비정부단체(NGO)는 없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서방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별 정치인, 파워 블로거, 언론인, 기업인, 지식인 등 개인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사우디 사회의 여론은 정부 각 부처가 주도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과 성과는 이러한 정규 언론 외에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파되고, 상세한 내용은 잘 규율된 언론에 의해 전파된다. 특히 현재 사우디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비전 2030의 추진은 각 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각 부처가 실시간 홍보에 활용하는 트위터는 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교 사안에 대한 정부의 보안관리 수준이 정치 사안 다음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엄격한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지는 주로 정부측 책임자의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사우디 국내에서도 외신 뉴스는, 특정 기사 외에는, 일반인들도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 매체는 언어별로 크게 아랍어와 영문 매체가 있고, 주위에 아랍어 사용 국가들이 많으므로, 사우디 국민들은 북한인들처럼 외부소식 접근 측면에서 고립되기는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사우디인들은 왕실과 정부를 따르고, 국익에 충실하고, 외국과 기꺼이 협력하되 자존감이 강하여 외국의 간섭에는 크게 반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외에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가 많지는 않다. 사우디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관한 여론의 반응을 조사하는 기구로는 Serco Institute, Saudi Center for Opinion Polling(SCOP), National Center for Public Opinion Surveys(King Abdulaziz Center for National Dialogue 소속) 등이 있다.

현재, 왕실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 미디어는, 종합 TV채널인 Al Saudiya TV, 뉴스채널인 Al Ekhbariyah 등이 있고, 신문



은 아랍어 일간지로 Al Riyadh, Okaz, Al Sharq Al Awsat, Al Jazeera 등 다수와 영어 일간지로 Arab News, Saudi Gazette 등이 있다. 사우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주로 정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패션, 스포츠, 오락 등 과거 이슬람 보수그룹에게는 환영 받지 못할 내용들까지도 신문에 자주 보도된다. 한류에 대한 짧은 보도들도 사우디 언론에 종종 등장한다.

〈사우디 주요 언론사 개황〉

구분	언론사	내용
방송	Al Saudiya TV(아랍어)	1965년 창립, 대표자 Saudi Broadcasting Authority, 사우디방송, 뉴스방송, 스포츠방송, 종교방송
신문	Al Riyadh(아랍어, 일간지)	1965년 창간, 발행인 Al Yamama Press Establishment, 15만부, 중도성향, 중부지방
	Okaz(아랍어, 일간지)	1960년 창간, 발행인 Okaz Publishing & Press Co. 10만부, 중도성향, 서부지방, Saudi Gazette의 자매지
	Asharq Al- Awsat(아랍어, 일간지)	1978년 창간, 발행인 H.H. Saudi Research & Marketing Ltd. 40만부, 중도성향, 최대아랍어일간지
	Al Jazeera(아랍어, 일간지)	1960년 창간, 발행인 Al Jazeera Press Co. 14만부, 중도성향, 중부지방
	Al Watan(아랍어, 일간지)	2000년 창간, 발행인 Al Assir Publishing and Press Org. 20만부, 개혁중도성향, 대표적 개혁성향지
	Arab News(영어, 일간지)	1974년 창간, 발행인 Hisham & Mohammed Ali Hafez, 5.5만부, 중도성향, 최대영어지, Ashraq Al-Awsat의 자매지
	Saudi Gazette(영어, 일간지)	1976년 창간, 발행인 Okaz Publishing Co. 5만부, 중도성향, Okaz의 자매지

※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개황(외교부)

8. 결론

우리는 종종 사우디 경제가 자연조건상 원인으로 불가피한 rentier economy 혹은 mono-cultural economy이기 때문에 경제안보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한 추측은, 세계의 rentier economy들 중 그런 사례가 많았고, 사우디 경제도 봄을 맞기 시작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최소한 5차례 심각한 추락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연조건상 원인으로 초래된 사우디 경제의 또다른 구조적 약점으로 농업 비중의 과소가 있고, 정책·사회·문화적 원인에서 비롯된 구조적 약점으로 비오일 제조업 취약, 공공부문 비중의 과도, 외국인 노동력 비중 과도, 숙련된 사우디인 노동력 부족, 여성 근로참여비율 과소가 있다.

그러나 COVID-19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던 2021년과 2022년, 세계경제가 원자재·부품 수급 불균형,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투자 위축, 성장을 둔화 등 후퇴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사우디 경제는 각종 지표에서 양호한 성장을 시현했고, IMF가 평가했듯이 지속성장 전망도 밝다. 이러한 사우디 경제성장과 글

로벌 경제성장의 비동조성은 사우디 경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강점들 때문이다. 그러한 강점들은 저렴한 생산비의 풍부한 오일, 저렴·풍부한 외국인 노동력과 젊은 인구구조, 안정된 정치체제,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리적 위치는 세계 최대의 불안정 지역인 중동의 중심에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들 중에서, 특히 고유가 시기에 사우디 산유역량에서 오는 강점은, 웬만한 글로벌 경제 후퇴와 국내 경제적 약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아 사우디 경제가 2022년과 같은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게 해주었다. 경제운영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인력 등 요소들의 부족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필수적인 공급망만 구축되어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부문 소득으로 그들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때로는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재화, 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레버리지를 갖기도 한다. 또, 국내에 고른 산업을 가진 국가들이 이런저런 외부 바람에 크고 작은 타격을 받는데 비해, ‘가지가 적은’ 사우디 경제는 ‘그러한 바람에도 나무가 흔들릴 일도 그만큼 적다.’ 또한, 사우디 경제의 강점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비교적 고유한 점으로 여러 아랍국가들과 달리 아랍스프링에도 동요되지 않았던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30년간의 국토통일 전쟁을 통해 28개의 주요 부족들을 통합하고 1932년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왕국으로 출범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부족간 충돌 없이 장기간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랍세계와 지구상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 사우디 경제는 심각한 위협요소들에 직면하는 경우 국가전체의 위기로 증폭되는 승수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의 핵심 산업시설과 국민의 거주지역이 불과 수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물과 전기, 식량의 생산·공급 루트가 항상 적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북경에서의 관계 정상화 합의 이전까지 주적으로 간주되어온 이란 외에도, 이란과 직·간접 연계를 갖고 있는 비국가 무장단체들 또는 종교적·이념적 테러단체들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초승달 형상으로 포위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들과 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는 물론 국민 생존, 왕권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제2차 대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안보를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왔으나, 2010년대 초 이래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이 점차 약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뒤늦은 1990년 수교한 사우디-중국 간 관계는 중국경제의 부상기인 2000년대 초부터의 강화된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로까지 발전했고(2016년), 앞으로도 정치, 안보 포함 전 분야에서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이 아직 불충분한 중국이 아직 중동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정책은 협력다변화와 무기생산 국산화로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무기 국산화율 50%를 목표로 제시했고, 안보 협



력선도 이미 중국, 프랑스, 영국, 한국,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사우디 영향력은 확실히 지속 감소 중이다. 다만 사우디의 무기 국산화를 위한 localization, Saudization 요구가 과도한 경향은 외국 방산업체들과의 협력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21년 초부터 변화가 시작된 사우디 왕세자의 대주변국 정책(화해·평화·협력)은 2023년 들어 대이란, 후티 반군, 시리아 관계에서 큰 진전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중동의 안정 회복, 사우디의 위상 강화, 사우디 비전 2030이행에 보다 나은 여건 조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와 홍해, 아라비아해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 지속 협력 중이고, 미국도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무인정파 무인기 도입, AI 적용, 다국적군(CMF) 운영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지역 국가들과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6년부터 2003년 간 긴 시간의 저유가 시대를 보내고, 2004년부터 회복세가 완연해진 유가가 2014년 중반까지 고공 행진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저유가 시대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부 증진, 도시 인프라 고도화, 국민복지 개선에서 많은 진전을 보았지만, 1980년대부터 추구하기 시작한 탈석유 경제화 목표의 진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국민역량 강화는 장기간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2005년부터 대폭 확대된 해외유학생이 오늘날 사우디 경제사회 발전에 귀한 자산이 되고 있고, 미흡한 여러 요소들은 오일부문 소득을 이용한 해외 도입으로 보충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부터 셰일오일의 빠른 공급확대로 인한 2014년 말의 글로벌 유가 폭락은 사우디 경제에 큰 위협이 되었다. 오일부문 소득의 급감은 2015년 1월 취임한 제7대 국왕 살만과 그의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MBS)에게 사우디 경제가 더 이상 오일에 의존하여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절감하게 해주었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사우디 왕실의 그러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과거의 분배방식들은 더 이상 사우디 왕정과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2016년 4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회·경제적 대개혁 방안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내놓았다.

15년 기간의 비전 2030은 야심차고 원대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 정치적 안정,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지만, 2021년까지 5년간은 첫째 및 둘째의 조건이 부재했다. 2014년 말부터의 저유가와 2020년 초부터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유가 폭락은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가져왔고, 2015년부터 이어진 주변국들과의 물리적, 외교적 충돌과 국내적인 정치·사회적 쇄신 조치들은 국가역량을 비전 2030에 집중하기 어렵게 했다. 사우디 상황에 맞는 정책의 선택과 재조정,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인적 쇄신에도 수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유가가 하락하여 사우디 오일부문 소득의 대폭 감소가 오기 전에, 사우디 경제가 대략 2030년까지 지속가

능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비전 2030하의 경제 다양화를 빠르게 진전시켜야 한다. ‘두 개의 시간’ 사이의 싸움에서, 비전 2030의 이행 속도가 승리하도록 사우디 정부는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석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글로벌 유가가 사우디 정부의 재정균형을 유지해줄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과거 전문가들의 예측은 종종 틀렸었고, 2023년의 유가도 이미 2022년 말 기준 예측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또다시 갑작스런 글로벌 팬데믹이 재발한다면, 비전 2030이행은 더욱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2021년 초부터 사우디 왕실의 대외정책과 사우디 비전 2030이 대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유가 회복과 팬데믹 완화, 주변국과의 화해·안정·협력 추구, 주변국 너머의 국가들로 협력관계 다변화,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층의 지지와 왕실의 공고한 정치적 리더십, 실질분야에서 외국과 교류협력 확대는 비전 2030의 이행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IMF도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노력을 긍정 평가한다. 일각에서 살만 국왕의 유고시 모하메드 왕세자의 안정적 왕위 승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왕세자는 이미 국정운영을 8년간 해오면서 국내 각 부문 장악, 국민 다수의 지지 확보, 국내 기득권층의 단합 유지, 사회·경제의 긍정적 변화 시현, 와하비즘(Wahhabism)의 왕실에 대한 존중 전통, 왕세자와 타국 지도자들 간 친분 축적 등 제반 요소들을 감안하면, 그의 왕위 승계가 좌절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사우디 경제의 기회요소들은 비전 2030의 성공적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기회요소 중에는 신산업 단계에 있는 제조업, 광업,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그린 산업의 육성이 포함된다. 인간 거주에 부적합한 과다한 태양광은, 역설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기에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호조건으로 반전되고 있다. 수전해 효율을 높일 기술이 개발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그린 수소 패권’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국내경제 성장을 위한 또하나의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생산량이 확대 중인 천연가스도,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블루수소 생산 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사우디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CCUS기술 개발도 획기적 진전을 거둘 수 있다면 사우디 국부의 기반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이다. 나아가, 동부 주의 원유와 천연가스에 이목을 집중하여 외면 받아왔던 북부의 테티안 벨트는 최근 금, 은, 구리, 아연, 니켈, 인산염, 보크사이트 등 미래용 광물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우디 이슬람의 보수성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관광대국화’가 실현되리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회문화적 변화, 2019년부터 49개국 국민에게 관광비자 발급, 국내 관광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점차 더 많은 방문자를 맞이하고 있다. 2030년 이전에, 네옴, 아말라, 레드 시, 젯다, 지잔으로 이어지는 홍해안과 배후 도시인 타북, 알울라, 메디나, 압하는 서부 관광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연간 1억명의 방문자 유치 목표 달성에는, 연 3천만명에 달할 순례자들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사우디 경제와 한국경제는 비교적 단선적 교류만을 가져왔다. 1973년 삼환기업이 산악사막 지역의 고속도로(Al Ula-Khaybar) 건설공사 수주로 대사우디 건설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된 후 최근까지 양국간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우디 오일 수입, 한국기업들의 사우디 건설프로젝트 수주, 양국간 약간의 공산품 교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이 이행되어가면, 그 핵심인 경제 다양화를 위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이행을 위해 중점 협력할 8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 초부터 양국 지도자들과 장관들, 기업들 간 상호 방문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양국간 경제관계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의미한다. 협력분야가 다양해졌고 협력주체도 대기업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고, 협력형태도 기술협력과 현지 투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주된 관심사항이었던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향후 5-6년간의 건설 붐이 진정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시공(EPC)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의 소규모 항목 수주 중심으로 점차 변경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종합건설 프로젝트가 수주 경쟁 가열, 우리기업들의 시공 단가 상승, 사우디 발주처의 발주 조건 복잡화 등으로 인해 매력이 떨어지고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대신에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IT, 문화 콘텐츠, 환경산업, 식량 및 식품, 방산, 의약·바이오 산업에서 사우디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이행, 사우디 정부의 대외정책 전환, GCC의 FTA 추진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와 한국의 경제안보에 긍정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국간 경제적·정치·외교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한국의 대중동 외교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대응전략을 필요로 하고, 이에 기여할 인력 양성에도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사우디 외교도 경제이익에의 집중에서 지역 협력 및 안보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전략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체제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사우디 여론 형성 구조는 특유성을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인, 사적 단체, 개별 기업, 언론인, 지식인, 정치인에 의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은 관찰하기 쉽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통적으로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어왔던 세력은 왕가, 부족 엘리트, 테크노크라트, 종교계 지도층, 경제계 지도층이었다. 그러나 살만 국왕 치하에서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 전개, 많은 변화를 요하는 비전 2030 추진, SNS가 소통의 중요한 수단 등장 등으로 인해, 이들의 사회내 존재감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발언권이 현직의 왕실 인사들에게 집중되었고, 부족 엘리트들 및 종교계 지도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정부 고위직의 테크노크라트와 재계 엘리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젊은 세대와 여성의 사회내 존재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일종의 현직자와 비현직자

간 분리, 정치와 종교 간 분리, 양성의 평등, 세대 간 평등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영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우디의 체제와 전통의 특성상, 정치와 경제 간 분리, 정부와 기업간 분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잠재적 여론 형성층으로서 하고 있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들이 집단적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모하메드 왕세자에 대한 지지도는 높고, 그들의 사회·문화·경제적 욕구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다만,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왕국, 이슬람국, 주권국가라는 사실은 최소한 단·중기에는 그 변화의 방향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헌법인 꾸란과 순나를 국왕이 이행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고,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사우디 통치기본법(1992)은 그러한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사우디 약황(※ 주사우디 한국대사관 자료)

□ 일반사항

- 수도 : 리야드(Riyadh)(인구 약 700만명)
- 인구 : 약 3,546만명('21.04. IMF)
- 면적 : 2,149,690km(한반도 10배)
- 민족 : 아랍족(베두인족 27%, 기타 아랍정착민 73%)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 독립 : 1932년(1927년, 영국으로부터 국가승인)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이슬람군주정(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 의회 : 국정자문회의(국왕이 임명권 행사)
- 주요인사
 - 국왕 : 살만(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King Salman bin Abdulaziz Al Saud)(15.01.23. 즉위)
 - 왕세자 : 모하메드 빈 살만(H.R.H.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17.06.), 총리 겸임(22.09.)
 - 외교장관 :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디(H.H. Faisal bin Farhan Al Saud)(19.10.)

□ 경제현황('21)

- 명목GDP : 8,335.4억불(Worldbank)
- 1인당 명목GDP : 23,585.9불(Worldbank)
- 경제성장률 : 3.2%, '22년 전망 7.6% (IMF)
- 인플레이션 : 3.1%, '22년 전망 2.5% (IMF)
- 실업률 : 전체 7.4%, 사우디인 11.0% (GASTAT)
- 화폐 : The Saudi Riyal(SAR) (1US\$=3.75SAR(고정환율))
- 교역현황(GASTAT)
 - 수출 : 2,762억불 (10,357억리얔)
 - (석유수출비중 : 73.2%, 비석유 수출액 740억불)
 - 수입 : 1,528.5억불 (5,732억리얔)
 - 3대 교역국 : 중국(총 수출의 18.4%), 일본(9.9%), 인도
 - 10대 교역국 : 상기 3개국외 한국, UAE, 미국, 이집트, 싱가포르, 바레인, 타이완 (총 수출의 68.4%)
- 주요자원(BP 세계에너지자원통계 2021)
 - 원유 매장량 : 2,975억 배럴(세계 2위, 점유율 : 17.2%)
 - 천연가스 매장량 : 6조m(세계 8위, 점유율 : 3.2%)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2.10.16.
- 공관현황
 - 우리측 : 상주('73.07. 잠파 / '84.09. 리야드 이전)
 - 사우디측 : 상주('75.04.)
- 수출입현황('21, KITA)
 - 수출 : 33억불(자동차, 타이어, 합성수지)
 - 수입 : 243억불(원유, 석유화학제품)
-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21, 누계 신고건수)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
 - 한국->사우디 : 58.3억불(877건)
 - 사우디->한국 : 20.6억불(86건)
- 에너지자원 협력관계('21,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원유수입량 : 2,81억배럴(281,774천배럴)
 - (1위, 총 수입량 9.60억배럴의 29.35%)
- 건설수주('65-'22.06누계) : 약 1,557억불(1,840건)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방문

80.05	최규하	대통령
01.05	이한동	국무총리
04.02	반기문	외교통상장관
05.11	이해찬	국무총리
07.03	노무현	대통령
07.08	송미순	외교통상장관
11.09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12.02	이명박	대통령(자나드리아추제)
13.02	기관지	국방부장관(국방협정체결)
13.09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13.11	윤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12	김영선	외교부장관
15.01	이명박	전 대통령
15.01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문단장)
15.03	박근혜	대통령
15.03	최인호	미래부장관
15.06	최인호	국토부장관
16.02	유정진	보건부장관
16.05	최인호	국무총리
17.04	홍준표	국무총리
18.03	백승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0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19.11 정경두 국방부장관
- 19.12 기흥미 국토부장관
- 19.12 김경호 외교부장관
- 20.02 홍남기 경제부총리
- 22.01 윤석열 대통령
- 22.11 윤석열 대통령
- 23.01 윤석열 대통령
- 23.03 이영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23.03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 23.05 한화진 환경부장관
- 방한
 - 98.10 압둘라 왕세제
 - 99.04 살만 리야드 주지사(현 국왕)
 - 00.10 술탄 제2부총리
 - 07.02 알-안카리 고등교육부장관
 - 07.11 고사이비 경제기획장관
 - 08.05 나이미 석유광물부장관
 - 10.10 알-하세에 수전력장관
 - 10.11 싸우드 알-파이살 외교부장관
 - 11.05 쉬크 국왕자문회의의장
 - 11.10 나이미 석유광물부장관, 팔리 ARAMCO 회장
 - 12.03 아마니 KACARE원장
 - 12.05 알-도와이히 주택부장관
 - 12.06 알-자세르 경제기획부장관(공동위)
 - 12.11 알-투르키 환경기상부장관
 - 12.12 알-자세르 경제기획부장관, 오스만 투자청장
 - 12.12 나이미 석유광물부장관
 - 13.04 라비아 보건부장관
 - 13.10 알 라비아 상공부장관
 - 14.10 알-자세르 경제기획장관, 알 라비아 상공장관
 - 14.10 알-이샤 법무부장관
 - 15.04 나이미 석유광물부장관
 - 15.06 압둘라 알-세이크 국왕 자문회의의장
 - 15.11 압둘라 알-무끄빌 교통부장관
 - 16.03 마제드 알-호가일 국토부장관
 - 16.07 칼리아 알-팔리 에너지산업광물부장관
 - 17.03 아델 파키흐 경제기획부장관
 - 17.05 압둘아지즈 관광청장
 - 17.10 아델 파키흐 경제기획부장관
 - 18.05 칼리아 알-팔리 에너지산업광물부장관
 - 19.04 알-트와이즈리 경제기획부장관
 - 19.04 라비아 보건부장관
 - 19.06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 22.05 야시르 알루마인 PIF 총재 겸 ARAMCO 회장
 - 22.06 반다르 빈 압둘라 문화부장관
 - 22.07 파이살 빈 파르한 외교부장관
 - 22.11 칼리드 알-팔리 투자부장관
 - 22.11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 22.11 마지드 알호기일 도시농촌주택부장관
 - 23.03 칼리드 빈살만 국방부장관
 - 23.03 모하메드 알자단 재무부장관
 - 23.05 살레 알-자세르 교통물류부장관
- 교민현황('22) : 약 2,100명(거주증 소지자 기준)

□ 주요 협정

- 75.01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75.07 문화협정
- 84.01 항공협정
- 84.10 개천항 개발차관 협정
- 90.02 항공운수 소득면제 협정
- 02.04 투자보장협정
- 07.04 이중과세방지협정
- 11.11 원자력협력협정
- 13.02 국방협력협정
- 15.03 해운협정
- 17.09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 18.04 사증발급 간소화 MOU('19.01. 발효)

□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없음.

□ 최근 주요 정세

- 살만 국왕(7대) 즉위('15.01.),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17.06)가 국정 운영
-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 아랍의 맹주, GCC 좌장국가
- 탈석유/산업다변화를 위한 VISION 2030 사업 추진 중

انا